

‘검은 목요일’ 코스피 3% 추락·환율 10.4원 급등

美·中, 무역협상 최종 담판 앞두고 날선 신경전
관세전쟁 재점화 우려...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미국과 중국이 최종 담판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다. 무역협상이 돌연 좌초 위기에 놓인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서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양국 간 관세전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면서 9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곤두박질했다. ▶관련기사 4·6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1월 1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93% 떨어진 2만1402.13으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48% 떨어진 2850.95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골드만삭스의 앨릭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10일 관세 추가 인상이 발동될 확률이 60%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부(USTR)가 선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연방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통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USTR의 통보 직후 바로 성명을 발표해 보복 의지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계획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얹었을 때 중국도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에서 10%로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팰름비치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거듭 주장하며, 관세 인상을 단행한 원인이 중국에



코스피가 마중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서울사무소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을 나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쪽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미·중은 ‘휴전 협상’에서 ‘한편으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하려는’ 상태로 전환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며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홍콩사우치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국무원 자문을 맡는 스인홍 인민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측이 받

아들이기 힘든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최종 합의문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문선영 기자 moon@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고강도 규제

금융위, 2금융권 대출 속도조절
영업재개 금고 등 관리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경기 하락 때 2금융권 대출이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출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에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 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 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자세히

살피고 잠재 부실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2.9%로 2017년(6.7%)과 2016년(12.9%)보다 크게 줄었다. 하지만 2금융권 취약차주 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65.5%로 은행(34.5%)보다 여전히 높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지난해 38.1%로 2017년 33.5%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을 ‘5%’대에 맞춰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시행되도록 2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다음 달까지 도입한다.
정영욱 기자 dragon@

현금부자 ‘아파트 줘줍’ 막는다 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국토부, 20일부터 본격 시행
실수요자에 많은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계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무순위 청약은 신규 주택 공급(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 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얻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

신규 주택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 규정 (주택공급규칙 제26조)
- 2018년 5월부터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공급 물량의 80% 권고
- 이달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청약단지 5배수로 확대

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5일 ‘버스대란’ 오나...서울·경기 파업 가결 노조, 주 52시간·준공영제 따른 임금인상 요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의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해 교통신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89.3%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61개 회사(63개 노조) 재적 조합원 1만

7396명 중 1만6034명이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만5532명, 반대 469명, 무효 33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불발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이 예고한 15일 전국 버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 3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전체 버스 회사는 총 65개, 노선 수는 354개, 차량 대

수는 7405대다.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 결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15개 버스업체 노조는 전날부터 투표를 진행해 남양주, 가평 지역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대구버지부는 9일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6.9%로 파업이 가결됐고, 광주 버스노조도 이날 오전 6시까지 실시한 투표에 1444명의 조합원 중 1154명이 참여, 95%(1102명)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전날에는 부산, 울산, 충남 등지의 버스노조가 투표로 파업을 결정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LS산전 회장〉

경영 험로 예고한 구자균… “긍정적 위기감 가져라”

구자균(사진) LS산전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긍정적 위기감’과 ‘똑똑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일부 기업총수가 신년사에서 ‘위기’를 거론한 이후 사실상 처음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구 회장은 대기업 IT 설비투자 감소와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등으로 전력 인프라 업계가 올해 최악의 경영환경에 빠진 가운데, 임직원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9일 LS산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사내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나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약재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좌절하지 말라”
긍정적 업무 프로세스 통해 불필요함 없애 효율 극대화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위기감’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구 회장이 언급한 ‘긍정적인 위기감’이란 긍정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일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생략하는,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고민하고 스마트 워킹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좋은 습관’이 LS산전의 강한 체질을 완성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특히 구 회장은 임원과 팀장급에게 ‘똑



똑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의 실행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실력이 곧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시장 판도를 읽지 못하고, 실행의 길을 열지 못하는 리더는 그저 한 명

“임원·팀장 ‘똑똑한 리더십’ 필요”
아이디어 등 조직 소통 강화 목표 달성 ‘길잡이’ 역할해야

의 기술자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하며 “리더는 시장과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활동의 ‘디테일’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역시 지금보다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해도 관행과 타성에 젖은 리더가 이를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 회장의 얘기다. 이어 “리더는 목표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상기시키고, 목표로 향하는 길로 안내하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스마트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의 등에 올라타서 격랑의 힘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강력한 LS산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LS산전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189억 원, 영업이익 28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3%, 48.2% 감소했다. 송영록 기자 syr@

“고객의 소리는 모든 일의 출발점” 지구촌 발로 뛰는 조현준의 특명

〈효성그룹 회장〉

효성티앤씨, 獨민헨 전시회 참가
유럽 아웃도어 시장 마케팅 전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고객의 소리를 듣자”는 특명에 따라 효성이 전 세계 무대를 뛰고 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충족하는 것이 기업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조 회장의 지론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 등을 중점무진하는 중이다.

9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8일부터 이틀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기능성 소재 섬유전시회 ‘퍼포먼스 데이즈

(Performance Days)’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퍼포먼스 데이즈는 운동복, 아웃도어류, 작업복 등에 적용되는 기능성 소재를 소개하는 자리다.

효성티앤씨는 고객사가 있는 이 전시회에 부스를 마련해 아웃도어류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전시회 테마인 ‘기능성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Function)’에 맞춰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냉감성(시원한 느낌 부여), 자외선차단, 흡한속건성(땀을 빠르게 흡수해 건조), 소취(땀 냄새 중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디자인도 구현할 수 있

는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패션업계의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해 페트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과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 ‘마이판 리젠’ 등도 공개했다.

효성티앤씨가 이러한 제품들을 선보인 것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조 회장은 “최근의 고객들은 기능과 디자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서 “또한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로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 전시회인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17’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중국 섬유원단업체인 아타이 대표 등을 만나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동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그룹

“효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고객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VOCC(Voice of customer’s customer)’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

황에서 저는 지금까지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전 세계 사업장과 전시회 등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며 고객과의 소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 및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AMI, ESS, MICRO GRID, SMART ENERGY CITY, SOLAR FARM, WIND POWER, EV, K-SEM

한국전력공사 KEPCO

〈중위가격〉

서울 한 채 값이면, 지방 네 채 산다... ‘지역 양극화’ 심화

원성 높아진 균형발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집값은 8.35% 상승한 반면 지방은 0.9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이 1.62% 오를 때 수도권은 4.53% 상승했다.

문 정부의 서울·지방 양극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빠졌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집값은 7.63% 올랐다. 같은 기간 지방은 6.65%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률에 버금가는 오름폭을 보였다.

이 차이는 큰 폭의 주택 가격 격차를 만들었다. 4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매매가격은 6억924만 원으로 지방(1억6937만 원)의 3배를 훨씬 넘는다. 가격차는 4억3987만 원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3월 서울(4억3540만 원)과 지방(1억5138만 원)의 격차는 2억8000만 원 정도로 3배에 못 미쳤다. 서울서 한 채 살 돈으로 지방 세 채를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네 채까지 살 수 있는 셈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들이 나오며 서울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뚝뚝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나며 서울

서울집값 8.4% 올때 지방 1%↓ 집권 초기 정책 오류가 상승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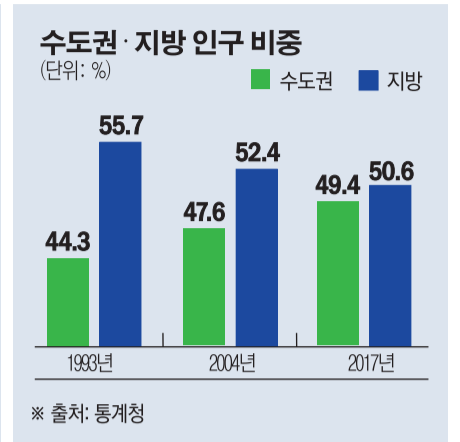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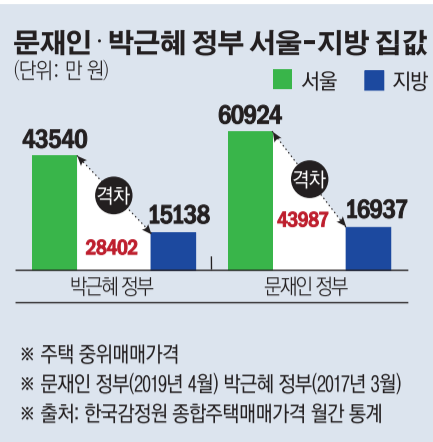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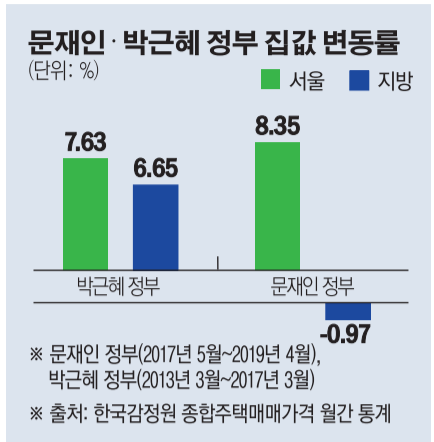
“신도시·규제는 뒷북 조치일 뿐 지방 인구 이탈 위기감 높아져”

집중화를 야기했고,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사재기’ 이후 서울의 매물 잠금 현상을 초래했다.

김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시장을 잘못 읽으면서 집값 상승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급 늘리기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오름세를 틀어막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짚고 내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시한 3기 신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의 인구 이탈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족도시화를 추구하며 집과 일자리 모두 수도권에 집중시켜 지방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에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41만 평, 가용면적 40%)를, 부천 대장지구에 1.4배인 68만㎡(20만 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신도시 조성계획은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안에서도 날아왔다. 앞서 1월 여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사·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기 신도시 대책으로)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지방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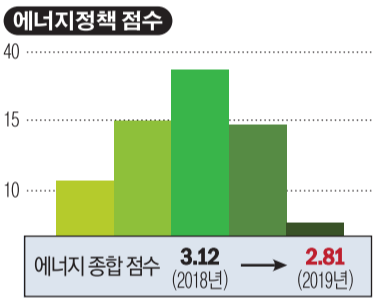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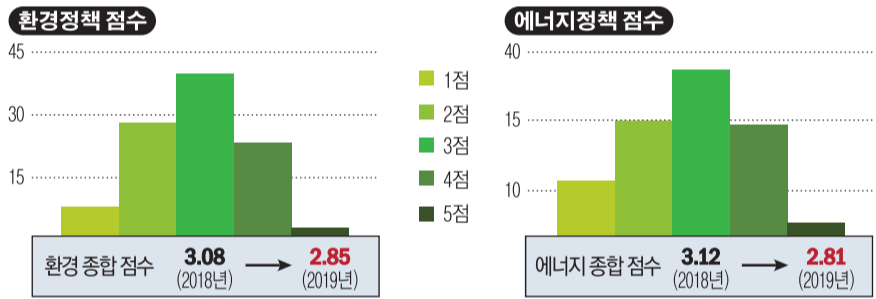
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지방에선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임기 초반만큼의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원성이 자자하다. 균형발전이 주요 국정 과제에 있지만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북 구미 대신 경기 용인으로 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미 지방 인구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수도권의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 증가해 1993년 44.3%에서 2017년 49.4%까지 증가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7월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경남 거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수도권에 집 많고 일자리 많으면 뭐하러 지방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현 정부 1년간 환경·에너지정책 종합 평가 응답 (단위: 명, 5점 만점 기준)



“지독한 미세먼지·쓰레기 대란 실망” 믿었던 환경·에너지 정책도 ‘낙제점’

시민환경연 100인 설문조사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믿었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차 정부의 평가 결과 3.1점(보통 수준)보다 낮은 점수다. 정부 출범 초기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가졌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정책 시행에 대한 실망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물 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를 꼽았다.

지구환경 정책은 2.43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 화력 석탄발전 실시 계획 승인’(64명),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은 가장 잘못된 환경·에너지 정책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 평가를 보면 4대강 보 처리

조사평가단 운영을 통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부 보의 해체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이 4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가 33%로 응답해 대체로 결과에 긍정적이었다.

현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매우 미흡+미흡)이 45%, 보통이 39%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으로 역점을 뒀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 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이었다. 에너지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 전망치 기준 37% 감축 목표를 웃돈다.

백명수 소장은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줬던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DIGITAL EASY LIFE

쉽지! 편하지! 편리하지!

KB국민카드는 DIGITAL EASY!

* KB국민카드

서울 '장관 집무실' 연내 없앤다

**정부, 세종 기능 강화 방안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 세종 개최가 원칙
보고 위한 서울 출장도 금지**

세종권에 있는 정부 부처가 이용해온 서울 장관 집무실이 연내 폐쇄된다. 또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와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도 세종시에서 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종에 있는 부처가 유지해온 서울

집무실을 올해 완전히 폐쇄하고,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열기로 했다. 세종권 부처의 장관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열도록 해 '회의 세종 개최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보고와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와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토록 했다. 필요한 출장엔 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도 강화한다. 필요한 출장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관관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세종시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고 회의를 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행정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월 행정안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했고, 8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안전자산인 채권 초강세

**국고채 5년물 기준금리 밀돌아
환율 전망 1200원·1150원 갈려**

타노스(트럼프)의 핑거스냅(중국이 함의를 줬다)에 위험자산이 재료로 변했다. 9일 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값은 급락해 2년 4개월 만에 최저(원·달러 환율 상승)치를 보였고, 코스피는 3.04%(66포인트) 폭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은 강세를 기록하며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환대조건부채권(RP) 7일물을 타깃으로 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밀돌았다.

◇점은 목요일, 원화값 폭락 =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4원(0.89%) 급상승한 117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인 엔화 강세에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10.73원 급등한 1073.77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1월 17일 1076.4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66.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은 0.9bp(1bp=0.01%포인트) 하락한 1.708%를, 국고채 5년물은 1.1bp 떨어진 1.744%를 보였다. 이는 한은 기준금리(1.75%) 대비 각각 4.2bp와 0.6bp 낮은 것이다. 3년물은 지난달 24일부터 역전 상황이 지속됐고, 5년물도 지난달 30일(-2.2bp) 이후 처음으로 재역전됐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본부장은 "타노스의 핑거스냅이 위험자산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 결과가 발표될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대내외적으로 안전자산선

호 심리가 확산했다.

◇P의 공포, 원·달러 상승 1200원 갈 수도 = 전문가들은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대해 펀더멘털보다는 정치적 리스크(Political-risk)에 휘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대내외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정희 KB증권 팀장은 "작년 6월에도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원·달러는 1070원에서 1125원까지 5% 정도 올랐다. 지금도 연초 1125원 선에서 1180원까지 5% 정도 올랐다"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더 오르다 보면 불안감 확산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진 때문일 수 있겠다"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관세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 협상 여지를 둔다면 올 하반기 원·달러는 115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본격적인 자본유출이 시작되면서 원·달러가 한번에 12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원화가 글로벌 현금인출기(ATM기)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세력을 중심으로 베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정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내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자본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역외세력의 베팅도 시작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생각보다 약하다. 수급적으로도 상승을 저지할 대기매물이 공백 상태"라며 "심리적인 불안까지 가세할 경우 원·달러는 한번에 1200원까지 치솟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의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규제체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 혁신 촉진”

**KDI '소득 3만 달러 과제'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내년 잠재성장률 밀돌 것
해외투자 유치 규제 철폐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

·사회적 도전 요인에 직면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 이내로 추정되며, 올해와 내년의 실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출 부진과 급속한 고령화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코엔 실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인구구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 허용 방식의 규제개혁, 대외 무역 및 해외투자 유치 관련 장애물 제거, 중소기업 지원체계 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매도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

금지원 확대를 통해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직업교육·평생학습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mismatch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파산·회생 제도를 개선해 실패 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소득 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문제점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3만 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과 가치 창출의 혁신 경제’, ‘미래 성장 과실의 자양분이 될 삶의 질 개선’ 등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명 기자 jye@

‘대기업집단 지정’ 관전 포인트

**공정위, 구광모·박정원·조원태 회장 총수 지정할 듯
재계 서열 2·3위인 현대차·SK 순위 바뀔 가능성**

15일 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인(故人)이 된 조양구 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을 대신할 차기 동일인이 이번엔 확정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지배 주주이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곧 그룹 총수다. 공정위는 정량조건(주식지분율)과 정성조건(지배적 영향력)을 따져 동일인을 지정한다.

우선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을 승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올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게 확실시된다. 구광모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지분 15%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8.8%를 상속받은 것이 컸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올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최대주주(지분 7.33%)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달 8일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 지정이다.

한진그룹은 최근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대기업집단 지정(관례적으로 매년 5월 1일)이 15일(마지노선)로 늦춰졌다. 이를 두고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남매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차기 동일인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4일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 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2017년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서열 2, 3위인 현대차와 SK의 순위가 역전될지도 주목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현대차와 SK의 자산 규모는 각각 220조5980억원, 213조2050억원 기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12월 SK의 경우 반도체 특수를 누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약 10조 원의 자산을 늘린 반면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의 자산변동은 거의 없었다.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재계 2위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반도체 한파' 탓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4.1%↓

반도체 호황이 저물면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98.7로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했다. 국산은 3.9%, 수입은 4.3% 각각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최종재가 10.2% 감소하고 중간재는

0.2% 증가했다. 최종재 중에선 자본재가 23.3% 급감했다.

자본재 공급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수출 둔화다. 지난해 말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반도체를 제조할 생산설비 투자가 줄어섰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20.2%)와 기타 운송장비(-43.5%), 품목별로는 특수선박(비상업용)과 웨이퍼(실리콘 기판) 가공장비 등이 크게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1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자본재의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소비재에선 휴대용전화기, 중형승용차 등이 줄었다. 업종별로 전자제품은 국산이 4.6% 줄었지만 수입은 3.2% 늘었다. 반면 자동차는 국산이 2.7% 늘고, 수입은 11.7% 급감했다. 중간재는 D램, 자동차 부품 등이 늘면서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세종=김지명 기자 jye@

이란 핵 합의 파기에 트럼프 “광물수출 봉쇄”

美 “핵개발 수입원 끊겠다”... 해외 금융기관 거래제재도 포함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의무이행의 일부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이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의 산업 광물 수출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광물은 석유를 제외한 이란의 최대 수출품으로 이란 전체 수출 규모의 10%를 차지한다.

전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핵 개발 활동 일부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합의를 깨고자 2015년 이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는 현 단계에서 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를 더는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핵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란의 수입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지금껏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의 기술 합작을 통해 이들 금속의 제련 사업을 활발히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수출하는 광물이 테러 집단과 그 네트워크에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급하고 군사력 팽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의 제재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차단하고 중동 지역에 미치는 이란의 해로운 영향에 대

응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란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이란산 금속 제품을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WMD 선임 국장은 이날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향해 “유럽연합(EU)과 유럽 측 이란 핵 협정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도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언젠가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협정 맺기를 고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산 광물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까지 90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6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객장에서 한 투자자가 증시 하락세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中, 무역협상 정보통제 증시서 피 보는 개미들

美 현지소식 전해지면 바로 삭제 관영언론 “증시하락, 불특정 요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관련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깜깜이’ 투자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초부터 세계 증시는 심하게 출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대중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 단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 제품에 25%, 2000억 달러어치의 다른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 달러어치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곧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국이 재협상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의 이런 위협은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나온 것인 만큼 파급력

이 컸다. 6일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개장 직후 3.0% 떨어졌고, 선전지수 역시 5.56% 급락했다.

그러나 정작 중국 투자자들은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를 몰랐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을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증시 하락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특정의 악세 요인”이라고만 언급했다. 중국의 양대 소셜미디어인 위챗과 웨이보에서는 관련 게시글들이 빠르게 사라졌다. WSJ 중국어판은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웨이보에 게시하려 하자 오류 메시지가 떴다고 전했다. ‘관련법과 규제’, 웨이보의 플랫폼에서는 ‘커뮤니티 규약’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투자심리 조작은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고 WSJ는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한 직접 개입 방식과 함께 정보 통제를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6일 상하이종합지수는 5.58%까지 낙폭을 확대한 후 장을 마감했다. 낙폭은 2016년 2월 이래 가장 컸다. 선전지수도 7.38%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임금·처우개선” 우버·리프트 운전자, 동맹파업 동맹 파업에 들어간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 경영자인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파업을 벌였으며 출근시간에 호출 앱을 깨우는 방식으로도 항의했다. 우버는 1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LA/AFP연합뉴스

GM, 오하이오 공장 ‘폐쇄’ 대신 ‘매각’ 선회

전기차 업체 워크호스와 협상중 트럼프, 트위터에 소식 먼저 알려

제너럴모터스(GM)가 가동을 중단한 미국 오하이오주 로스타운 공장을 전기차 업체인 워크호스그룹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통해 먼저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하이오에 좋은 소식이 있다”며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그들의 이름 다운 로스타운 공장을 워크호스에 매각하려 한다”고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GM은 오하이오에서 별도의 3개 지역에 약 7억 달러(약 8189억 원)를 투자해 4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나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GM과 잘 일해왔다. 메리 바라와 위대한 주지사, 립 포츠먼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복귀하면서 더 많은 것들로 인해 미국이 번영하고 있다”고 GM을 치켜세웠다.

그러자 GM은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GM은 성명에서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2017년 3월 15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임플랜트 타운십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 트럼프 대통령은 8일 GM이 폐쇄했던 오하이오 로스타운 공장을 전기차업체에 매각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GM을 칭찬했다. 입실렌티/AP뉴스

이지만 이번 움직임은 현지에서 생산을 복귀시키고 전기차 조립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워크호스의 스티브 번스 설립자는 “우리가 GM과의 거래를 마치는 대로 공장을 재정비해 신속히 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수백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장에서 기업 수요에 특화된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GM은 2018년 11월 오하이오 공장을 포함해 북미 공장 5곳에 대한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는 트위터

에 “GM에 실망했다.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로스타운 공장은 3월 문을 닫아 14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GM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동안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로스타운 인수로 나온 워크호스는 근로자가 약 100명이며 작년 100만 달러 매출을 올린 스타트업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워크호스가 최대 63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우정국의 우편배달 트럭 입찰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 ‘인도 첫 직영점’ 어디에?

뭄바이 유력... 아이폰 가격 인하도

애플의 인도 첫 직영점 오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인도 내 첫 직영점 후보지를 몇 군데 정했다며, ‘인도의 경제 수도’ 뭄바이가 유력하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종 후보지는 애플의 기존 직영점이 있는 뉴욕 5번가와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버금가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애플은 현지 조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인도에서 직영점 개설을 금지 당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방침을 바꿔 인도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고, 직영점 오픈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에 따른 우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중국에서 토종 브랜드에 밀려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샤오미와 비보 같은 저렴한 중국 브랜드가 인기인 인도에서 뒤늦게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2019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그는 “인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인도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시장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애플이 진출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인도에서 애플의 입지는 초라하다. 전체 사업에서 인도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을 발표하지 못할 정도다. 그만큼 애플에는 수익 창출 여력이 큰 시장이다. 애플이 제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면 수입산 스마트폰에 매겨지는 20%의 관세도 피할 수 있다.

애플은 인도 소비자를 잡기 위한 판매 전략도 수정했다.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들을 고려해 가격 인하에 나섰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Xr 가격을 1만7000루피(약 244달러) 내린 5만9900만 루피에 판매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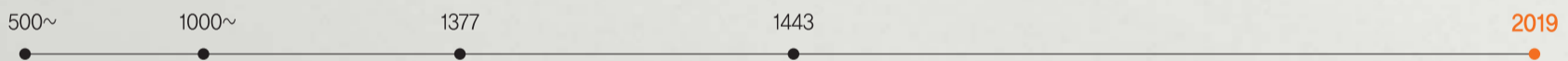
신라금관

고려청자

금속활자

훈민정음

SK하이닉스 반도체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시대를 선도했던 선조들처럼
SK하이닉스도 첨단 반도체로 세상을 이끌어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열정과 도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9.5.1 ~ 2019.7.19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종합검사 '수검 부담' 줄인다더니... 요구자료 더 늘었다

금감원, 말 따로 행동 따로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에 맞춰 밝힌 '수검 부담 완화'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관치 논란이 제기됐던 종합검사를 놓고,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지 않도록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적인 사안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말 KB국민은행의 종합검사 착수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 검사요구 자료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전 자료제출 관행과 달라진 게 없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KB국민은행에 10개 부문 125개 항목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민은행의 마지막 종합검사 시기인 2015년 당시 10개 부문 100개의 항목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늘어난 규모다. 검사

종합검사 부활 관치 논란 우려에 '전체 아닌 핵심 점검' 밝혔지만 국민銀, 추가 검사 항목 많아져 업계 "달라진 것 없어" 불멘소리

팀은 자료를 분석한 뒤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하는데, 최근 1개 부문(외국환)을 추가하고 총 61개 항목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4년 전에는 기존 10개 부문 내 항목별 개별 요청만 있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사 착수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은행 전반을 살살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전 부서가 매달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야 하는 만큼 자료 준비는 수검기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검사 매뉴얼에도 사전자료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 요청 억제, 업무 종료시간에 임박해 자료를 긴급하게 요청함으로써 야근을 유발하는 등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 까닭이다.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 검사장구자료 항목

은 △경영관리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 적정성 △내부통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리스크관리 △IT △금융소비자권익보호다. 이전 종합검사에서 '기타 자료'로 분류돼 있던 부분을 '금융소비자권익보호'로 명칭을 바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뒀다. 펀드 및 방카슈랑스 관련 불안전 판매 여부, 금융상품 법률검

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살살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4년 만인 올해 부활했다.

토 현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은행이 올 초부터 30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IT부문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지난달 새로 부임한 지배구조 검사반장도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지배구조 점검이 이전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선정 기준에 명시한 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을 중점으로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우리은행은 8일 인천지점에서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개점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본인의 핸드프린팅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권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박남춘 인천시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안상수 국회의원, 김영제 (주)NKG 대표이사.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銀,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식

우리은행은 8일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이용권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김영제 (주)NKG 대표이사 등 인천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인천지점은 우리은행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의 첫 번째 영업점으로, 1899년 5월 10일 중구 신포동 부근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1956년 경동출장소 자리로

이전하기도 했지만, 인천지점은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금융기관 최초의 지점이다. 개점 이후 120년 동안 지역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와 '인천지역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 전달 행사가 진행됐다. 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점을 아끼고 이용해준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우리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We Believe 동행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는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과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0명의 관객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콘서트는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수 홍진영, 이승환 밴드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인천지점의 120년 역사를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5월 한 달간 휴가 금지령" 종합검사 떨고 있는 금융사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사전자료를 요청하며 사실상 본격 조사가 나섰다. 그러나 '수검 부담 완화'를 내건 금감원의 방침과 달리 과거 종합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대상으로 낙점된 금융회사들은 '휴가 금지령'까지 동원해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KB국민은행에 종합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125건 요청했다. KB가 받은 마지막 종합검사인 2015년 당시 100개의 항목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다. 여기다가 최근 1개 부문(외국환)을 추가하고 61개 항목을 추가로 요청했다. 4년 전에는 기존 부문 내 항목별(10개) 개별 요청만 있었다.

보험사의 경우도 사전자료 요청 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수검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 줄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수검 금융회사 부담 경감 방안은 사전 검사요구 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 적극 활용 등이다.

하지만 종합검사를 둘러싼 금융사와 금감원 간 온도 차가 크다. 여전히 수검 부담은 적지 않다는 게 금융사의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사전 검사 단계지만 이미 검사 준비에 돌입했다. 한화생명·은감사실 및 법무팀 중심으로 구성된 수검 대응반을 상근으로 운영하고, 파트장급으로 구성된 비상근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감사·법무팀 중심 수검 대응반 상근으로 운영 금감원 "피감기관 입장서 호평 나올 확률 높지 않을 것"

준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총 8개 부문의 86개 항목이 요청됐다. 경영일반, 보험영업, 계약보전, 자산운용, 책임준비금 등이 포함됐다. 메리츠화재에도 7개 부문 59개 항목에 대한 사전자료 요청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5월 중순께 종합검사 실시를 통지하고 5월 말부터 10영업일 간 사전검사를 한다. 사전검사를 토대로 종합검사 방향을 정한 후 20영업일 간 본 검사에 나선다. 본 검사는 3주간 약 20여 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부활한 이번 종합검사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검사할 만한 사항이 있는 회사만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에서 핵심 부문을 검사해 실질적인

종합검사 부문과 관련된 부서는 부서장 재량으로 휴가 금지령을 내린 곳도 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5월 한 달간 휴가 금지령을 내려 해외여행을 취소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부담을 느끼는 건 금감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말 그대로 검사할 만한 사항이 있는 회사만 검사하겠다는 뜻인데, 만약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한다면 애초에 검사 대상 금융사를 잘못 선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번 종합검사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감기관의 입에서 호평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며 "검사를 하는 금감원, 받는 금융사 모두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서지연 기자 sjy@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 "디지털화 3개년 계획 세울 것"

취임 1주년 사내방송 출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김 회장은 사내방송 특별 대담에 나와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직원들과 소통했다. 그는 2기를 맞아 △체질 개선 △미래성장 기반 마련 △농산업 가치 제고 △인재양성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체질 개선은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자회사가 본연의 사업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9일 사내방송에 출연해 2기 경영전략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성장 기반에 대해서는 큰 축으로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꼽았다. 미래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해 빠르지만 철저한 준비를 언급했다.

그는 "농협금융은 계열사와 함께 대면·

비대면 사업 포트폴리오, 업무 프로세스, 채널 및 조직구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전략 과제를 만들어 향후 3개년 실행 방안을 올해 9월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업 가치 제고도 약속했다. 김 회장은 "기존 대출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농업인 지원, 농식품 기업 발굴과 투자, 운전자금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산업 가치사슬 전방 토털 금융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

인재 양성에 관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물론, 임직원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전문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카메라·SSD 영토 넓힌 '반도체 코리아'



삼성, 세계 최고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개발

업계 점유율 1위 소니 추격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64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선보이며 업계 1위 일본 소니의 아성에 도전한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설명회를 열어 0.8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초소형 픽셀을 적용한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6400만 화소)'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4800만 화소)'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출시로 0.8μm 픽셀 이미지센서 라인업을 2000만 화소부터 3200만·4800만·6400만 화소까지 확대했다. 최신 모바일 기기는 전면을 스크린으로 가득 채운 '풀 스크린'과 여러 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멀티 카메라' 트렌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작은 칩 크기로 고화소를 구현할 수 있는 초소형 픽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6400만 화소의 'GW1'은 업계 모바일 이미지센서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제품이며, 4800만 화소인 'GM2'는 크기가 작아 활용처가 넓은 점이 특징이다. 이 두 제품은 빛의 손실을 줄이는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로 색 재현성을 높였으며,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이는 '테트라셀' 기술도 적용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GW1 제품은 하반기 전략 모델인 갤럭시노트10를 비롯해 유수의 제조사 플래그십 모델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매출 기준 점유율 49.9%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9.6%로 2위다. 박용인 삼성전자 S.LSI 사업부 센서사업팀 부사장은 "모바일의 경우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 점유율은 영속적이지 않으며 시장이 전환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다. 충분히 (소니를 이길) 자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하이닉스, 낸드 면적 대비 저장용량 33% 개선

차세대 '낸드 셀' 샘플 출하

SK하이닉스가 1테라비트(Tb) QLC 제품을 개발해 주요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 업체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현재 양산 중인 세계 최초 96단 CTF 기반 4D 낸드 기술에 자체 QLC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QLC 시장이 본격 형성되는 시기에 맞춰 96단 기반 1Tb QLC 제품까지 낸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차세대 고용량 메모리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QLC(Quadruple Level Cell)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 낸드 셀(Cell)에 4비트(bit)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셀 하나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기존 3비트에서 4비트로 늘어나면서 같은 크기의 칩에 저장용량을 33% 늘릴 수 있다. QLC 기술로 1T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손톱 크기의 작은 칩에 총 2748억 개의 셀 집적과 고도의 QLC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3D 기반 QLC보다 90% 이하로 면적을 줄인 이 제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하나의 칩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셀과 주변부 회로를 의미하는 '플레인(Plane)'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데이터 처리 성능도 2배 수준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SSD용 컨트롤러와 낸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들에 최근 샘플을 보내 동작 성능을 확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QLC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 중으로 향후 고객 수요에 맞춰 적기에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나한주 SK하이닉스 낸드개발사업전략 담당 상무는 "기업용 QLC 수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내년 이후부터 QLC 기반 SSD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16테라바이트(TB) 이상의 솔루션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하는 고용량 기업용 SSD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한상범 LGD 부회장 "5G 시대엔 올레드"

UHD 산업발전대회 기초연설

한상범(사진)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우리나라 CEO로는 처음으로 UHD 산업발전대회 기초연설자로 나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9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9 세계 UHD 산업발전대회'에서 한 부회장은 '5G와 고화질 콘텐츠 시대의 디스플레이 역할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초연설을 했다.

중국 공신부와 미디어 관리 기관인 광전총국, 광동성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UHD 산업발전대회는 중국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모여 UHD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초연설에서 한 부회장은 5G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능동적 소비 행태가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의 발전에 따라 운송수단의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Device)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G 시대에 요구되는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디바이스 창으로서 올레드를 꼽았다.

한 부회장은 "5G 시대 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고화질은 기본이다. 또 다양한 센서 및 기능이 융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춰 시청각 디바이스로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가 올레드"라며 "올레드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서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동성과 디자인 자유도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기초연설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시대 여러 업체와의 협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결성이 핵심인 ICT 시대에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와 방송, 콘텐츠, 디바이스 등 이종 사업 간 무수히 많은 협업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韓 배터리, 中 보조금 문턱서 좌절

LG화학·삼성SDI 탑재 전기차 형식승인 통과했지만 결국 제외 보조금 끝나는 2021년 기다려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사업 재개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 대상에 최종적으로 제외되면서 3년 만의 사업 재개 역시 물거품이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처인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공고한 보조금 지급 대상 친환경차 리스트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동평르노자동차의 전기차 4종, 삼성SDI 제품을 적용한 충진진강자동차의 전기차 1종이 모두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 승인은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6년 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

리 모범규준 인증'에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을 제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핵심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배터리 분야에서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중국 정부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증에 또다시 실패했으나 배터리 업체들은 형식 승인 통과 이후에 보조금 수취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큰 기대감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베이징벤처가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형식 승인을 획득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존 계획대로 보조금이 완전 폐지되는 2021년을 준비해 중국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더 월' 올해의 디스플레이 수상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반 모듈러 디스플레이(SID)로부터 '올해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뽑혔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위크 2019 (Display Week 2019)'에서 '올해의 디스플레이(Display of the Year)' 상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더 월'은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초소형 LED 소자를 촘촘하게 적용해 △화면 크기 △해상도 △배열 등 기존 디스플레이의 4가지 제약을 없앤 미래형 디스플레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아시안나 국내선 '유공자' 할인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달 6월에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 기간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 동행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국내 첫 佛 건축외장 인증

LG하우시스의 인조대리석이 국내 업계 최초로 '프랑스 건축물 외장 인증(CSTB)'을 획득했다. LG하우시스는 최근 인조대리석 제품 '하이맥스(HI-MACS)'가 프랑스건축과 학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CSTB 획득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CSTB는 건축물 외장 자재가 갖춰야 할 풍압·방화·지진·외부충격·내구성 등 제품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가공 및 시공법까지 총 25개 이상의 항목을 약 2년에 걸쳐 까다롭게 테스트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글로벌 인조대리석 업계에서도 미국 듀폰과 스페인 포르세라노사 등 두 개 업체만 이 인증을 획득했다. 변효선 기자hsbyun@

현대차 '수소전기차 기술' 소형 선박으로 확대

강원도청과 '어선' 개발 협약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기술을 친환경 소형 선박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70만 기 생산 및 공급'이라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는 셈이다. 현대차는 9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수소포럼 2019'를 통해 강원도청과 '친환경 수소 어선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MOU를 통해 소형 어선을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동력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가 개발

하게 될 소형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현행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어민들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MOU를 통해 강원도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수소 어선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확대를 앞세워 수소사회 진입을 공언한 바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이외에도 중장비와 열차, 선박, 발전 시스템으로 영역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고급차·SUV가 수출시장 버팀목

국내 수출단가 6년 새 12% ↑
판매 감소 속 수익 방어 효과
작년 수출 10대 중 6대 SUV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수출단가가 최근 6년 새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UV와 고급차 등 상대적으로 비싼 차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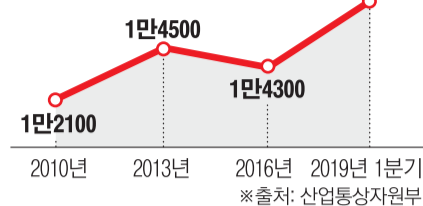
9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올 1분기 수출은 58만2075대를 기록했고, 총 수출금액은 91억9364만 달러였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해외, 특히 중국과 신흥국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그나마 수출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모델을 중심으로 수출 제품을 전환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1대당 수출단가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4년(1만4867달러)을 정점으로 한풀 꺾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만4300달러, 1만4264달러로 연이어 하락했다.

본격적인 반전은 2017년에 시작했다. 1대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추이 (단위: 달러)



당 평균 수출단가가 사상 처음으로 1만5000달러 수준을 넘어 1만5147달러까지 솟구쳤다. 지난해에도 1만5397달러, 올 1분기에는 1만5795달러까지 단가가 상승했다.

평균 수출단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국내생산 해외수출' 자동차는 2012년 317만여대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작년 기준 244만9600여대까지 줄었다. 이 기간 수출물량이 22.7% 감소한 반면, 총 수출금액은 13.6% 줄어드는 데 그쳤다. 비싼 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수익 하락을 막아낸 셈이다

실제로 소형차와 세단 등에 집중됐던 수출 물량은 SUV를 비롯해 고급차로 확대 중이다. 2012년 전체 수출(317만0634대) 가운데 승용차 수출(202만3480대)이

차지한 비율은 무려 6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SUV 수출(90만3606대) 비율은 28.5%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수출(244만9651대) 가운데 승용차 수출(90만7649대) 비율은 37.1%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SUV 수출(138만7691대)은 56.6%에 달했다. 승용차 수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반면, SUV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신흥국을 겨냥한 전략형 소형차는 가격경쟁력을 위해 현지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나 산업 수요가 증가한 SUV는 국내생산 현지수출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나아가 2015년 본격화된 고급차 브랜드 전략도 수출 단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출 대수가 줄어든 반면 그나마 총 수출금액의 하락세는 선방한 경우"라며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국내 생산원가가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모델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다시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르노삼성이 내달 르노 마스터 버스를 출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선보인 마스터 밴. 사진제공 르노삼성

다채로워진 수입 상용차 시장

르노 '마스터 버스' 6월 출시 국내 첫 고정식 13인승 모델

상용차 시장의 색깔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수입차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에 지속해서 신차와 신기술을 들여오는 중이다.

르노삼성이 지난해 마스터 밴에 이어 최근 막을 내린 '2019 서울 모터쇼'에서 15인승 마스터 버스를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마스터 버스는 르노 그룹의 120년 승합·상용차의 헤리티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럽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르노 마스터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뛰어난 동력 성능 덕에 특히, 캠핑카 등 특수차 업계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마스터 버스의 좌석은 접이식이 아닌 넓고 편안한 고정식으로 설치된 게 특징이다. 모든 시트에 3점식 안전벨트를 달아 안정성을 높였다. 시트는 장거리 이동에도 앉아있기 편안하게 설계됐으며, 앞 좌석과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안락한 여행을 돕는다.

르노삼성이동차는 13인승 버스로 출시할 계획이다. 아직 고정식 좌석을 갖춘 13인승 버스는 국내에 없는 모델이라 업계는 르노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스터 13인승 버스는 13명이 모두

탑승해도 좌석 공간이 여유롭고, 별도의 짐칸이 있어 더욱 실용적 활용이 가능하다.

마스터 밴과 같이 앞바퀴굴림 방식으로 움직여 계절의 영향 없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승차감을 자랑한다. 또한,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Extended Grip Control)' 기능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 그리고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와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기능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다.

르노삼성이동차는 마스터 구매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조건을 제공, 엔진과 동력부품은 물론이고, 차체 및 일반 부품까지 모두 3년·10만km를 보증한다. 또한 르노 마스터 버스의 차량 판매와 서비스는 상용차만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판매 지점과 AS센터를 통해서 이뤄진다. 르노 마스터 버스는 이르면 6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는 지난해 '뉴 데일리 유로 6(New Daily Euro 6)'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뉴 데일리 유로 6는 상용 밴과 새시캡 두 가지 형태로 출시, 엄격한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볼보트럭은 최근 국내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안전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특별 전시회
봄새벽을 깨우다
Modern Transitions in Korean
Calligraphy and Painting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2019.
4.16. TUE
6.2. SUN

GS칼텍스 주유소서 전기차 급속충전

15일부터 서울 7개 직영점

GS칼텍스가 9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100kW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을 펼친다. 서울 도심 주유소에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S칼텍스는 서울 송파구 스마트위례주유소와 서울 중구 초동주유소 등 7개 직영주유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8대를 설치하고 15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상업운영은 시범 운영이 끝나는 28일부터 시작한다.

GS칼텍스가 서울 도심 주유소에 급속 충

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일부 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급속 충전기를 찾던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GS칼텍스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100kW급 급속 충전기로 30분만에 50kWh를 충전할 수 있다. 기존 50kW급 이하 충전기들에 비해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50kWh는 약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서울에서 대구 인근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GS칼텍스는 상반기 중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주유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포스코 '미세먼지연구센터' 설립

포스코그룹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설립했다.

RIST는 9일 광양분원에서 미세먼지연구센터 현판 제막식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장인화 포스코 사장, 이시우 광양제철소장, 유성 RIST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IST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화학, 화공, 환경, 연소

관련 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 센터는 다양한 산업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초미세먼지 포집용 고효율 집진기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낮은 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 IoT를 활용한 집진기 운전 자동제어기술 등의 개발도 추진한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 우선 적용해 기술검증을 완료한 후, 국내외 산업 현장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제철소 환경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IFE
PLUS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가치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취임 한 달 박영선 장관 “정부,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

“현재 우리 사회는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와 같은 변혁기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때보다 더 빠른 속도의 변혁기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100년 전이 ‘주행 속도’의 변화였다면 지금은 ‘데이터 속도’의 변화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했어야 했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장려책을 제공했어야 한다”며 “즉,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술 발달에서 소외된 계층과 이를 선도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박 장관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갈락고개에서 컴업(Come-Up)하는 나, 밑으로 내려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함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정부가 실기한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 잘못 투자한 것도 있다고 본다”며 “문 정부마저 재정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 벤처 붐’ 정책과 관련해선 “제2 벤처 붐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0년 1조1000억 원이던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6년 2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한 카페에서 열린 취임 한 달간 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경제, 중요한 갈림길 과거 정부처럼 시기 놓치면 안돼 ‘제2 벤처 붐’ 가시화...투자 증가세 중企, 세계적 기업 되도록 도울 것

1500억 원, 2017년 2조3800억 원, 지난해에는 3조4200억 원으로 늘었다. 동시에 2017년 3개이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은 현재 8개로 증가했다.

박 장관은 ‘연결자’로서 중기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축사회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고, 대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연결자 역할을 중기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에서 장관이 된 소회에 관해서 그는 스스로 고3 수험생에 비유했다.

박 장관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나와야 하고 예습, 복습도 해야 하는 등 고3 수험생이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애플이 과거 중견기업이었을 때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을 써 준 세계를 사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도 자라나는 신생기업, 뿔박질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서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2기 장관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그는 “중기부 1기는 동토에 씨를 뿌리던 시기였다”며 “2기는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테더 사태 후 2주 동안 3000억 인출 비트피넥스,뱅크런 우려 확산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가 보관 중인 자산 지갑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피넥스와 모회사를 공유하는 관계사 테더(Tether)의 달러 보유액 부족 사태가 사용자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 트러스트노드(TrustNodes)는 비트피넥스의

중 4만3000비트코인(약 2억 5000만달러)이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 뉴욕 검찰총장(NYAG)이 지난달 24일 비트피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모회사인 아이피넥스를 고발한 전후로 대량 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테더사는 테더(USDT) 발행량의 74%만큼 현금 및 현금 등가물(단기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며, 테더 발행량 전액만큼 담보가치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선 “테더사가 출범 이후 줄곧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이마저도 사실 관계를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비트피넥스의 비트코인 콜드월렛(오프라인 자산보관소)에는 총 11만 9000비트코인이 보관돼 있었지만, 현

재 7만6000비트코인으로 4만3000비트코인이 출금됐다. 3000억 원 가까이 2주 만에 인출된 셈이다.

콜드월렛은 코인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오프라인 지갑으로 자산 이동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고객들이 비트피넥스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산 인출을 요청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비트피넥스는 유동성 측면에서 급

박한 모양새다. 비트피넥스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레오(LEO)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1레오(LEO) 코인을 1테더(USDT)

코인과 동일한 가치로 고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테더조차 달러 고정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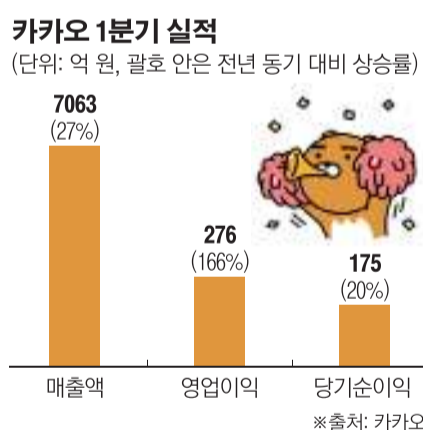
예컨대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코인베이스의 1비트코인 가격은 5963.91달러(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지만, 테더로 거래되는 비트피넥스 시세는 6220달러이다. 테더 가치가 달러에 비해 4.2%나 낮게 책정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테더와 관련한 잔고 부족 의혹과 뉴욕 검찰총장의 비트피넥스 손실 은폐 의혹 제기 등 다방면으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행하는 새 코인(LEO)도 가치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카카오 1분기 성장·수익 다 잡았다

영업익 276억... 166% 경증
매출도 작년보다 27% 늘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수익 확대

‘비즈보드’ 새 광고 서비스...
카카오 최대 수익원 기대감



카카오가 1분기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올해 신규 사업의 수익화를 시작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져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일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 원, 영업이익 2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166% 증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매출 분류를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재편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특 비즈(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티콘 등), 포털비즈, 신사업(모빌리티,페이 등) 실적이 포함되며, 콘텐츠 부문 매출은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카카오페이지, 다음웹툰, 픽코마), IP비즈니스 매출이 반영된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한 313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 비즈 매출은 카카오톡 내 광고 인벤토리 확대와 메시지 광고 성장, 선물하기 등 커

머스 사업 매출 증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269억 원을 기록했고,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264억 원을 달성했다. 신사업 매출은 모빌리티,페이 등 신사업 수익화 확대와 신규 공동체의 연결 편입 효과로 전 분기 대비 32% 성장,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2% 증가한 598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3932억 원이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멜론의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한 1372억 원을 기록했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 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한 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IP비즈니스·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873억 원이다. 카카옴의 영상 제작 및 신규 자회사 편입 등 신규 매출

원 확대, 카카옴의 판매 호조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이날 진행된 2019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여민수 카카옴 대표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위해 채팅창에 광고를 개설해 베타 테스트를 거친 후 정식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보드 서비스는 최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새 광고 서비스다. 카카옴 대화 목록 사이에 배너광고를 추가하며 카카옴 최대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여 대표는 “브랜드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사용자의 관심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옴 사용자 경험도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며 “연간 5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비즈보드를 통해 국내 광고 시장의 판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대표는 “신규 광고 상품인 카카옴 비즈보드는 메가트래픽과 기술 결합한 상품으로 카카옴만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카카옴만의 차별적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신규 광고주를 디지털 광고로 더 유입하고 국내 광고시장 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매출 성장 목표치도 밝혔다.

여 대표는 “올해 신규 사업의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올해 23%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상반기 폐지”

박양우 문체부 장관 간담회서... 게임업계 일제히 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박양우(사진) 장관이 9일 경기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리얼리티매직,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진흥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PC온라인 게임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 장벽을 깨겠다는 것이다. 결제한도 폐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내에 조정될 전망이다.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었다. PC온라인 게임을 달리 모바일 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문체부의 이 같은 발표에 게임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체마다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이라며 “매년 문제 대 왔던 결제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에서도 발전적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맛있는 거 + 맛있는 거



멍치니까 더 맛있네~

경계 허무는 식품 시장

아이스 조리퐁·치토스 치킨 등
식음료 장수 브랜드 간 컬래버
재미로 먹는 밀레니얼 세대
호기심 자극하며 좋은 반응

‘박카스 소르베’, ‘야쿠르트 샤베트’에 이어 ‘아이스크림 조리퐁’까지 식음료 브랜드 간 결합이 이외의 ‘케미’를 발산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Z세대가 소비의 큰 축으로 떠오르면서 특히 식품 시장에서 재미(Fun)를 중시하는 차별화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식품업계 7대 트렌드 중 하나로 ‘재미를 먹다’를 꼽기도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가 크라운제과의 인기 스낵 ‘조리퐁’과 손잡고 5월 이달의 맛 ‘아이스 조리퐁’을 출시해 화제다. ‘아이스 조리퐁’은 우유에 타 먹는 조리퐁을 고스란히 아이스크림으로 구현했다. 조리퐁맛, 우유맛 아이스크림에 초코 코팅된 조리퐁까지 넣어 달콤한 맛을 자아낸다.

참쌀떡 속에 조리퐁 아이스크림을 넣은 ‘스노우 모찌 조리퐁’도 조리퐁 스낵을 연상시키는 패키지로 신경 썼다.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우유, 조리퐁을 블렌딩한 음료 위에 바삭한 조리퐁을 듬뿍 올린 ‘조리퐁 셰이크’도 있다.

베스킨라빈스 측은 앞으로 크라운제과의 ‘카라멜콘팡퐁’을 변용한 ‘아이스 카라멜콘팡퐁’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마카롱카라멜콘팡퐁’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베스킨라빈스 관계자는 “베스킨라빈스는 여러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보여 고객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왔다”며 “오레오와 결합한 쿠키 앤 카라멜, 허쉬와 컬래버한 마카다미아 너트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제품을 활발히 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카레’, ‘케첩’ 등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오푸기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카레 화이트 에일’, ‘토마토 블론드 에일’ 2종으로 구성된 수제맥주 세트를 직원들에게 증정했다. 수제맥주 전문업체 에메이징브루잉 컴퍼니와 협업한 해당 맥주캔에는 오푸기 로고와 함께 ‘브라보 2019’ 등의 문구가 담겼다.

오푸기 측은 공식 판매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내부 반응을 살핀 뒤 향후 판매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코나와 손잡았다. 2월 출시된 ‘치토스 치킨 2단 콘스프맛’은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위에 달콤하면서 고소한 콘스프맛 시즈닝 가루를 뿌려 완성했다. 이 제품은 2017년 9월 출시된 ‘치토스 치킨’에 이은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으로, 고소한 맛과 뉴트로 트렌드의 패키지를 강조해 10대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는 한국야쿠르트가 판매하는 프랑스 크림치즈 브랜드 ‘끼리(Kiri)’와 손잡고 3월 이달의 도넛 6종을 출시한 바 있다.

‘프렌치 크림치즈 필드’, ‘프렌치 크림치즈 크림볼’, ‘프렌치 크림치즈 먼치킨’ 3종은 도넛 속에 ‘끼리 크림치즈’로 가득 채워 호응을 얻었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식품 브랜드 간 컬래버레이션에 대해 “꾸준히 사랑받아온 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환기시키고, 재미와 즐거움을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대형마트 ‘한우 전쟁’... 소비자 ‘즐거운 비명’

“온라인에 뺏긴 고객 되찾자”
집객 효과 기대 노마진 할인

대형마트들이 이번엔 한우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업체별로 노마진 수준으로 정가가 대비 최대 40~50%씩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상당한 집객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한우에 대한 50%의 할인폭은 유통업계 사상 초유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우를 싸게 내놓는 이유는 미끼 상품으로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사 먹는다는 고가 상품을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마트는 15일까지 일주일간 ‘93한우’ 행사를 진행해 한우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 행사상품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는 보통간의 사전 비축을 통해 한우 200마리, 40톤 규모의 물량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고객들은 한우 등심 1등급/1+등급 100g(정상가 8500원/9800원)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950원/6860원에, 추가로 KB국민카드 결제 시 5100원/5880원에 살 수 있다.

한우를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한우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의 이번 한우 행사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한우 할인 행사를 펼친 데 대한 대응 전략

대형마트 한우 할인 행사

업체명	기간	이벤트명	대표상품	비고
홈플러스	3월 14~20일	고기대방출2탄	농협한우 1등급 등심(100g) 5690원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	4월 4~10일	극한한우	1등급 한우 등심(100g) 4968원	정상가 9200원
이마트	5월 9~15일	93한우	한우 등심 1등급(100g) 5100원	정상가 8500원

의 일환이다. 홈플러스는 3월 초 ‘고기대방출 2탄’ 행사를 통해 ‘농협한우 1등급 등심(100g)’을 5690원에 내놨다. 정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이다. 한 달 뒤 롯데마트 역시 1등급 한우 등심(100g)을 4968원에 파격 할인하는 ‘극한한우’ 이벤트를 진행했다. 롯데 역시 직접 한우 경매에 참여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우 공판장에서 매매참가인 자격을 획득하면 우선 경매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게 된 효과가 크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한우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반드시 경매 참가 때문만은 아니다. 경매에 참여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대형마트의 경우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한우 물량은 전체 매입량의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매매참가인 자격을 획득하고 있지 않은 홈플러스가 3월 행사 때 선보인 농협 한우 가격은 이마트의 ‘93한우’ 행사 때와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노마진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초저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

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들이 판매하기 쉽지 않아 경쟁력이 있고, 기본 가격도 비싸 집객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 한우”라면서 “노골적으로 미끼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매 자격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장애물도 낮다. 최근 롯데마트는 집객효과를 위해 2010년에 선보였던 ‘통근치킨’을 9년 만에 꺼내들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골목상권 죽이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정육업계는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뚜렷하지 않다.

고심이 깊어지는 곳은 유통 공룡을 경쟁자로 맞게 된 정육점 자영업자들이다. 영등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하루 종일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면서 “수입산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하나 싫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상시적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가 생존기묘에 선 만큼 다른 업종 입장까지 살필 여력이 없다”면서 “집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품목이 한우인 만큼 마진이 적더라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국민가격 “이번엔 원두커피”

이마트가 국민가격 상품으로 콜롬비아 100% 싱글오리진 원두커피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피코크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수프리모’ 원두커피 1kg(홀빈)을 1만2980원, 500g·200g(분쇄)을 각 7480원·3480원에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피코크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수프리모’는 유통 방식을 간소화해 유사 상품 대비 가격을 약 40% 저렴하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부담 없는 한잔... ‘잔 와인’이 뜬다



업계 최대 규모 와인 복합 매장 현대백화점 와인익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금융사 PB센터에 근무하는 이모(38) 씨는 요즘 VIP 고객과의 미팅을 ‘와인익스’에서 진행한다. 딱딱한 사무실보다 ‘잔 와인’을 즐기며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2.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강모(42) 씨는 백화점 쇼핑 도중에도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과 용량의 잔 와인을 즐긴다.

올 초 현대백화점이 압구정본점에 오픈한 와인 전문 매장 ‘와인익스’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최근 ‘잔 와인’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백화점이 부담 없는 가격에 ‘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 바로 변

신하는가 하면 여의도 일대 직장인을 타깃으로 ‘잔 와인’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레스토랑, 펍 등 식음매장은 물론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잔 와인’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일상 속에서 ‘생활 와인’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는 서울 스퀘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여의도 IFC점 등 세 곳을 와인 과 맥주를 강화한 특화 매장으로 운영하고 최근 밝혔다. 더플레이스 측은 3만~8만 원대 와인을 60%, 8만~15만 원대 와인을 40%가량 구비했다고 전했다. 더플레이

유통매장들 잔 와인 선보이며 대중화
다양한 종류·가격 부담 적어 판매 3배 ↑

스 상품팀 백민정 과장은 특화 배경에 대해 “회식, 저녁 모임이 많고 주류에 대한 니즈가 높은 곳, 잔 단위로 가볍게 즐기고 싶어하는 와인 수요가 있는 곳을 와인 특화 매장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류 종류 또한 다양화하고, 모든 와인을 잔 단위로 판매해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CJ푸드빌에 따르면, 더플레이스 특화매장 운영 후 서울스퀘어점 기준으로 잔 단위의 와인 판매량이 기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업계 와인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영업 면적 330㎡)로 ‘와인익스’를 선보였다. 현재 국내 주요 백

화점의 와인 매장의 크기는 약 66~165㎡ 수준이다. 이는 디저트 등 델리 매장 2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식품관에 100여 평의 대형 매장을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한 잔씩 구매해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바’, 시즌별로 10여 종의 와인을 시음하는 ‘테이스팅 코너’도 운영한다. 실제로 ‘와인익스’가 오픈한 올 1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와인익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일평균 400~600여 명의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며, 이는 와인익스 오픈 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명학 현대백화점 가공식품팀장은 “1만 원 내외의 ‘한잔 와인’을 시켜놓고 책을 읽는 고객, 저녁 식사 후 매장에 들러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객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36兆 재생의료산업 도태 막으려면 침생법 통과부터”

〈2026년 세계시장 규모〉

〈침단재생의료법〉



이병건 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SCM생명과학 대표)은 “K바이오가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선 재생의료 시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생의료시장에 베팅이 안 되면 세계 시장 선점 기회마저도 놓쳐 버릴 수가 있다”며 “연구, 투자 등 재생의료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인터뷰 이병건 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K바이오가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선 재생의료 시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센타워 SCM생명과학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이병건 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SCM생명과학 대표이사)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생의료란 인간세포와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으로,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재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가인체조직을 이용해 면역 거부반응이 없고 치료 효과가 빨라 기존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료법으로 떠오르면서 재생의료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45억 달러(5조2830억 원)였던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연평균 17.3%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에는 308억6200만 달러(약 36조 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세계 각국에서는 총 1028건의 재생의료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재생의학 분야의 기업들은 2017년도 대비 73% 급증한 총 133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세계 재생의료 시장은 덩치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규제, 투자 등 여러 이유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재생의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줄기세포다. 전 세계에서 시판되는 8개 줄기세포 치료제 가운데 △하티셀그램(파미셀) △카티스템(메디포스트) △큐피스스템(안트로젠) △뉴로나타알주(코아스템) 등 4개가 한국산이다. 그러나 아직 단 1건도 미국 시장 진출 사례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회장은 “해외에서 위상이 높아진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리스크가 적고 조 단위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재생의료 시장의 경우 생소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져 베팅이 안 되면 세계 시장 선점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조직 이용한 재생의료 면역 거부반응 없어 주목

글로벌 시장 年17.3% 성장

국내선 규제에 발목 잡혀

재생의료법 개정안 일본

임상 늘고 투자 활성화 효과

침단재생의료법 통과 통해

세계 시장 선점 기회 잡아야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초기 재생의료 시장의 주도적인 입지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구, 투자 등 재생의료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국내 재생의료 기업들은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 제약산업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회장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선 일본처럼 막혀 있는 규제들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생존방안으로 2014년 재생의료법을 개정하고 임상 1상이 끝나면 조건부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재생의료 시장은 임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주변산업 규모도 동반 성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로슈, 노바티스 등과 같은 빅 파마

들은 연구·개발(R&D)비용을 연간 10조 원 이상 투자하지만 국내는 1000억~1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인력, R&D 등 여러모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세계시장 판도를 미리 파악하고 재생의료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과감한 개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최근 불거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침단재생의료법(침생법) 통과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더 지체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국내도 연구인력, 의료보험, 병원시스템 등을 잘 이용하면 세계 재생의료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규제들을 풀고 지금보다 공격적인 접근으로 재생의료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침생법이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K바이오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상 1상 후 조건부 판매가 가능해진 일본은 새로운 치료제를 갈망하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침생법 통과에 대한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처럼 국내의 어려운 생태계를 풀어가 고자 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가 2016년 발족됐다. 협회체는 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 제안, 글로벌 협회체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내 재생의료 산업 분야의 국제적 입지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GC녹십자, 강스템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재생의료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기업,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벤처투자회사 등 60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협회체의 최대 목표는 당연히 ‘침생법 통과’다. 이 회장은 “재생의료시장에서 K바이오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올해는 회원사들과 힘을 합쳐 침생법 통과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그는 “다양한 세포치료제학회를 통한 정보교환 및 벤처 펀딩을 위한 VC미팅 등을 마련해 국내 재생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의료계 신성장동력 ‘재생의료센터’

난치성 질환 치료법 떠오르며 병원들 재생의료센터 설립 붐 대학·병원·기업 네트워크 강화

미래병원의 핵심으로 ‘재생의료’가 떠오르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기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하면서 병원들은 재생의료 관련 센터를 만들고 불륨을 키워가고 있다. 전문병원들도 재생의료를 특화시키는 등 재생의료 분야 강화에 나서면서 병원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찌감치 재생의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왔던 차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2000년대 초 센터를 세우고 GMP시설(세포치료제 생산실), 제대혈은행 등 세포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치성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병원은 임상시험, 수술, 입원까지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서울성모병원은 외래진료와 함께 연계한 ‘융합형 세포치료진료센터’, 한양대병원은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미래의학연구원 내 유전체 연구소·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등을 구성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맞춤의료를 준비 중이며, 서울대병원도 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에 GMP시설을 구축하는 등 관련 기반을 마련 중이다.

특히 재생의료를 도입하는 전문병원들도 눈에 띈다.

비만 특화 전문병원 365mc는 인체 폐지



외래진료와 연계한 서울성모병원 ‘융합형 세포치료진료센터’ 모습.



강남연세사랑병원 줄기세포연구소 모습.

방을 활용한 재생의학 연구개발 활성화에 돌입했다. 지방흡입 수술을 통해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 조직을 활용해 재생의학 연구와 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세포 외 기질, 지방줄기세포 등 여러 유효 성분을 추출해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남연세사랑병원도 관절전문병원 중 최초로 줄기세포연구소를 개소했다. 특히 전문병원 줄기세포연구소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과 의약품 등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 들어 대학과 병원, 기업 등의 네트워크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재생의료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연구 및 치료 활성화는 앞으로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JW홀딩스 ‘혈액검사로 췌장암 진단’ 中특허 획득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시장 선점 입지 다져

JW홀딩스가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 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JW홀딩스의 원천기술은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견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플랫폼으로 2017년 연세대 백용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적 항원 ‘CA19-9’를 검사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초기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CFB(보체인자B)’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원천기술 보유는 자사가 유일하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JW홀딩스는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 기술과 관련해 국내 특허는 2016년, 일본 특허는 2018년 취득했으며 미국,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홀딩스는 현재 자회사 JW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CFB를 포함하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탐색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으로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혈증 조기 진단 키트의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진단 분야에서의 미증족 수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만 매년 약 66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또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11%로 전체 암 종류 중 생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난치성 질환이다.

미국 암학회 등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췌장암에 대한 조기 진단 마커가 없기 때문에 2020년에는 췌장암이 암환자의 사망 원인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췌장암 치료 및 진단 관련 시장은 2015년 17억3000만 달러(약 2조 원)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 31억 8700만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올해도 어김없이... 못믿을 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상장사 76곳 영업의 컨센서스 실제 실적과 10% 이상 괴리율

삼성엔지니어링 91.7% '최대' 키움증권·호텔신라도 차이 커

상장사 1분기 실적 괴리율 (단위: %)

종목명	추정치 대비 괴리율	
	영업이익	순이익
삼성엔지니어링	91.7	170.3
키움증권	78.3	73.7
호텔신라	47.1	20.7
하나투어	43.8	44.6
SK가스	-67.1	적자전환
현대로템	-87.2	흑자전환
녹십자	-88.6	-24.3
해성디에스	-90.4	-84.9

※출처: 에프앤가이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상장사 실적 추정치와 실제 성적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분기 상장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잠정치 합계는 375조4912억 원, 32조2716억 원으로 증권사 컨센서스를 각각 -1.3%, -2.9% 하회했다.

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25개사 중 76개사(60.8%)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실제 실적과 10% 이상의 괴리율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1분기 영업이익은 1190억 원으로 증권사 컨센서스(521억 원)를 91.7% 상회하면서 괴리율이 가장 컸다. 한화투자증권은 820억 원(최대치)으로, 현대차증권은 520억 원(최소치)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실적은 이를 훨씬 넘어섰다.

실제 실적과 78.3%의 괴리율을 보인 키

움증권에 대해서도 신한금융투자는 1356억 원, 하이투자증권은 960억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1분기 영업이익은 2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호텔신라(47.1%), 하나투어(43.8%), NH투자증권(43.3%) 등도 높은 괴리율을 보였다.

반면 해성디에스(-90.4%), 녹십자(-88.6%), 현대로템(-87.2%) 등은 실적 전망치를 과대 평가한 사례다. SK가스(-67.1%), KCC(-65.9%) 등도 실제 실적이 전망치를 한참 못 미쳤다.

흑자를 전망했지만 적자로 집계된 기업도 다수다.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테크윙의 영업이익에 대해

각각 70억 원, 65억 원을 추정했지만 실제 실적은 영업손실 21억 원이다. 적자를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58억 원)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410억 원, 160억 원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컨센서스와 실제 실적 간 큰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국내 상장사의 특수한 경제 환경을 지적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에서 시장 전망치와 실적 간 편차가 유난히 큰데, 내수보다는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기업의 매출액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또 자산손상차손 등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 힘든 기타 영업외손익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적 시즌 어닝쇼크나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실제 컨센서스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며 "애널리스트의 실적 전망을 단순 평균으로 묶어 놓은 값(컨센서스)보다는 퀄리티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증권사 32곳 중 대다수 증권, 신용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조건 '매수'를 대거 제시했다. '매수' 비율은 90.4%에 달했지만 '중립'과 '매도' 의견은 각각 9.5%, 2.9%에 불과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5000억에 3500억 더~" 홍콩법인 힘신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올 들어 두번째 증자 단행
홍콩법인 자본금 1.8兆로
전체 해외법인 자본금 절반
마오얀 IPO 공동주관사 등
해외사업 재편 성과 본격화



스를 세워 미국 사업의 지배구조도 개편했다. 올해 1월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시장 불확실성에 대응

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통해 영국 런던 법인의 투자 자본을 줄이고 이를 홍콩으로 이전했다. 홍콩에서 IB(투자은행), 트레이딩 업무 등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박 회장에게 포착된 것이 기회로 작용했다.

박 회장의 글로벌 사업 재편은 다양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인 올해 첫 자본금 확충이 이뤄지고 닷새 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유니콘 기업 '마오얀 엔터테인먼트'의 홍콩 기업공개(IPO)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또 지난달에는 홍콩 주룽반도(구룽반도)에 있는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의 메지닌(중순위) 대출에 2억430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투자기로 했다.

해외법인의 수익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박 회장은 3월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레터에서 "1분기 미래에셋그룹 해외법인이 약 700억 원의 세전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미래에셋그룹 해외법인이 올린 세전이익 약 1534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성적이다. 박 회장은 올해 일본에 진출하고 중국과 인도의 비즈니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박현주(사진)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통 큰 홍콩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홍콩 글로벌 회장 겸 글로벌경영전략고문(GISO)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잇단 자금 수혈을 통해 홍콩 법인의 투자 여력을 확장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홍콩법인에 3508억 원을 증자기로 했다. 앞서 1월에도 홍콩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5000억 원을 증자한 바 있다. 두 번의 증자로 홍콩법인의 자본금은 1조8000억 원으로 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 전체 자본금 3조3000억 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규모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5월 박 회장이 미래에셋대우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홍콩 회장 겸 GISO를 맡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작년 초 인도법인을 개업하고 3000억 원 규모로 유증을 진행했다. 또 6월에는 뉴욕법인과 LA법인을 총괄할 지주사인 미래에셋시큐리티홀딩

금융위 "증권사 '차이니스 월' 낮추겠다"

'업 단위'서 '정보 단위'로... 금융사 자율성 높일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스 월)를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종규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차이니스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

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새로운 차이니스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

니스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차이니스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자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www.childfund.or.kr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내부거래율 100% 육박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귀뚜라미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인 귀뚜라미그룹이 여전히 일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50년 전통의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를 비롯해 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나노캠, 센추리, 귀뚜라미냉동기계 등 계열사가 18개에 달한다. 이 중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된 대표적 회사는 나노캠과 귀뚜라미홈시스다.

나노캠은 1991년에 설립된 보일러 관련 부품 회사다. 현재 기준으로 나노캠은 △귀뚜라미 52.81% △귀뚜라미문화재단 23.35% △최진민 회장 외 3인 23.84%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나노캠의 경영진은 최 회장의 부인인 김미혜 씨가 최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내이사로는 최 회장의 장남이자 부국증권 김중건 회장의 사위

최진민 회장과 부인 공동대표

‘나노캠’ 작년 내부거래율 99.8%

2010년 이후 주주 구성 미공개

‘귀뚜라미홈시스’는 33.6%

이익잉여금 규모 해마다 늘어

인 최성한 전무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캠은 지난해 513억 원의 매출 중 99.81%에 달하는 512억 원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2016년(471억 원 중 452억 원)과 2017년(469억 원 중 467억 원)에도 내부거래율이 각각 95.97%, 99.57%로 줄곧 매출의 대부분을 귀뚜라미와의 거래로 올리고 있다.

귀뚜라미홈시스도 내부거래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귀뚜라미홈시스는 2010년 감사보고서를 끝으로 주주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진민 외 2인 61.96% △귀뚜라미문화재단

귀뚜라미그룹 내부거래 나노캠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471억 원	469억 원	513억 원
내부거래	452억 원	467억 원	512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	36억 원	31억 원
내부거래율	95.97%	99.57%	99.81%

귀뚜라미홈시스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8억 원	1억1192만 원	3647만 원
내부거래	7억 원	8339만 원	1226만 원
영업손실	45억 원	11억 원	10억 원
내부거래율	87.50%	74.51%	33.62%



21.34% △귀뚜라미 16.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3647만 원 중 33.62% 규모인 1226만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난해는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2016년(8억 원 중 7억 원)과 2017년(1억1192만 원 중 8339만 원)엔 각각 내부거래율이 87.50%, 74.51%에 달했다.

나노캠과귀뚜라미홈시스의이익잉여금 규모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나노캠은 2017년 2053억 원에서 지난해 2086억 원으로 이익잉여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귀뚜라미홈시스도 2017년 2996억 원에서 지난해 3086억 원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에게 떨어지는 배당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나노캠은 우수한 보일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높은 내부거래로만

주목받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나노캠은 현재 각방제어시스템, 가스감지기, 온수순환펌프 등 독자 상품을 개발해 귀뚜라미 외에 건설사 등 자체 유통망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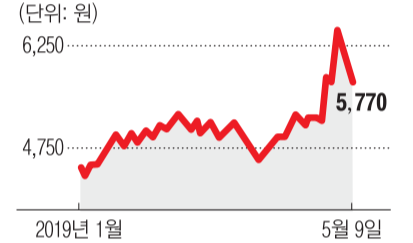
오예린 기자 yerin2837@

색소 치료 레이저 ‘피코하이’ 2분기 출시 글로벌 공략 박차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하이로닉 주가 추이



하이로닉

하이로닉의 주력사업은 피부미용의 료기기 제조·판매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로닉은 색소 치료, 문신 제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를 2분기에 출시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력 제품은?

“집속초음파 치료(HIFU) 기술을 이용한 ‘더블로’라는 의료기기 사리즈가 주력 제품 중 하나다. 별도의 절개 없이 집속초음파를 이용해 진피층에 직접 열 에너지를 전달해 리프팅할 수 있는 장비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눈썹 리프팅’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가장 최근의 버전인 더블로골드의 경우 2016년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분기 실적 호조 배경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800.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생산공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인적 조적을 최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판매 및 연구조직의 최적화를 통해 판매비를 절감한 것도 주요했다. 생산공정 개선 등 조직의 최적화 효과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판매처는?

“국내의 경우는 자회사 하이로닉코리아를 통해서 국내 병·의원에 납품하고 있다. 본사와 가까운 서울·경기지역은 하이로닉코리아에서 직판을 진행하며, 지방의 경우 권역별로 능력 있는 대리점을 발굴, 대리점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국가별로 대리점을 발굴해 각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매출 국가는 홍콩,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와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란과 UAE 등 중동에도 상당 부분 수출하고 있다.”

-올해 라인업 확대 계획은?

“색소 치료와 문신·기미 제거 등에 사용되는 피코레이저 ‘피코하이’를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 전 해외시장부터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장비 외에도 올해에는 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꾸준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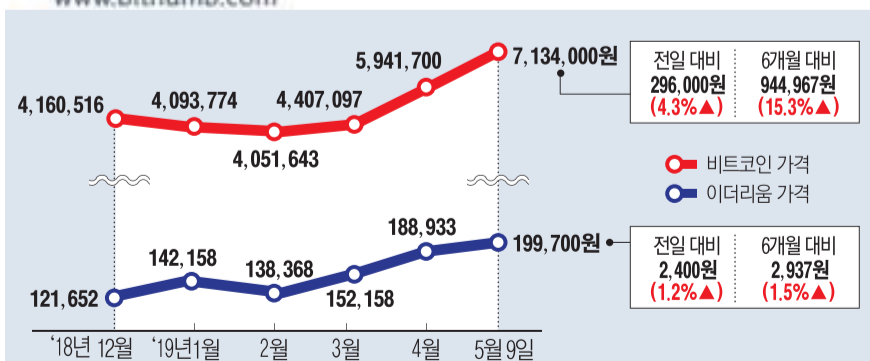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프랜차이즈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액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5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7,300	7,100 (2.2%▲)	모네로	78,700	1,450 (1.9%▲)
리플	357	4 (1.1%▲)	비트코인골드	23,420	2,920 (14.2%▲)
라이트코인	86,75	1,750 (2.1%▲)	이더리움 클래식	6,655	95 (1.4%▲)
대시	137,400	500 (0.4%▲)	퀀텀	2,886	34 (1.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출이 돼야 청약하지...” 미분양 증가 부작용 우려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미분양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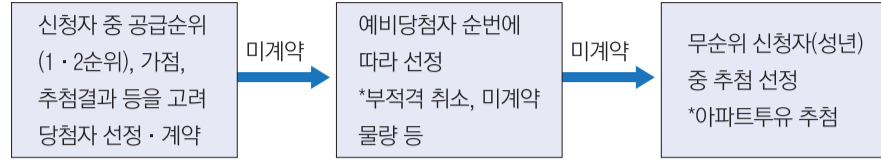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계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

후순위 신청자 계약 기회 제공
무순위 청약 물량 최소화 기대
실수요층 대출한도 해제 급선무
무순위 청약 없애는 것도 고려를

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청약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고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쓸어담기, 즉 ‘줍줍’ 경쟁이 부쩍 가열됐다.

실제로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신규주택 공급 절차(투기과열지구 내)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1만4376명에 이르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미계약분 174가구에도 5835명이 몰렸다. 256가구를 분양하는 방배그랑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6738명이 신청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예비당첨자만 늘릴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형석 미국 SWCU 대학 글로벌부동산센터 교수는 “예비당첨자 규모를 늘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청약제도에서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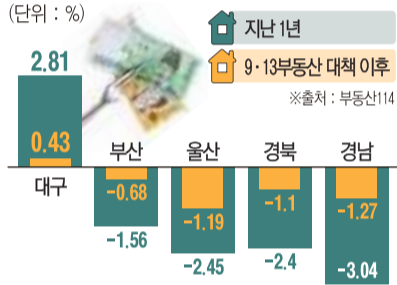
첨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라는 것인데 막상 당첨되면 대출이 안 되니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층에 대출 한도를 확실히 풀어주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지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이번 개선안은 많은 정당순위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며 “다만 예상 비율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후 계약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규제 지역은 까다로운 청약제도로 1순위 자격이 안 되거나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예비당첨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사전에 무순위 청약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잘나가던 영남 집값 꺾였다...대구만 나홀로 상승

경남 -3.04%·경북 -2.4% ‘고전’
대구 2.81% ↑ ...상승세 지속
청약시장 열기도 뜨거워 ‘주목’

영남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한동안 호황을 이어가며 매년 청약경쟁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영남지방(부산, 울산, 경북, 경남)의 부동산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만 온기를 보이고 있다.

9일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확인해본 결과 영남지방에서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3.04%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울산광역시도 2.45% 하락했으며, 그 뒤를 경상북도(-2.4%)와 부산광역시(-1.56%)가 이었

다. 반면 대구는 2.81% 상승하며 영남 지방에서는 유일한 상승을 기록했다.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대구의 상승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대구광역시는 0.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아파트값 상승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에서도 상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평균 청약경쟁률 56대 1을

기록하면서 호황을 맞이한 대구의 분양 시장은 2016년과 2017년 숨 고르기를 마친 뒤 지난해 무려 50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54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경기도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인구 규모나 공급 규모 면에서 대구보다 훨씬 큰 경기도와 청약자 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대구의 청약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2017년까지만 해도 부산, 경남 등 지역은 분양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던 곳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인기 지역이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제 옛말이 된 상황”이라며 “반면 대구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못지않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주택 체감경기 ‘냉랭’

5월 HBSI 전망치 85.2...전국은 74.1 그쳐

규제 강화 탓 주택경기 더 악화

서울 주택사업경기에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85.2로 집계됐다. HBSI 실적치는 4.4포인트 오른 86.8로 나타났다. HBSI지수는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치다.

주산연은 서울의 HBSI 전망치가 80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규제 강화 기조 지속,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이달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전국 HBSI 전망치는 74.1로 전월 전망치(73.6)보다 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주산연은 “봄 주택사업 성수기가 무색

할 정도로 70선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도 주택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거래감소 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주택사업자가 체감하고 있는 주택사업경기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요인별로 보면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92.9(전월 대비 1.2포인트 ↓), 재건축 87.0(전월 대비 1.0포인트 ↓)로 소폭 하락했다.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치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2019년 주거종합계획)가 본격화되면 재개발사업 추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를 받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영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모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성장을 위한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15.000원

‘경춘선 숲길’ 7년만에 쏠 구간 개방

서울과기대 인근 미개통 구간 연결... 박원순 시장 “서울~춘천 자전거길 완성”

서울시가 2013년 첫삽을 뜬 ‘경춘선 숲길’이 7년 만에 완전히 연결돼 총 6km 전 구간이 개방된다.

서울시는 1~3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행복주택 건설공사로 중간이 끊어진 채 미완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0.4km 구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구~공덕제2철도건널목, 행복주택 지점)까지 연결을 완료, 완성된 ‘경춘선 숲길’ 전 구간을 시민에게 11일 정식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경춘선 숲길’은 2010년 12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 무허가 건물 난립 등으로 방치됐던 경춘선 폐선 부지를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녹색의 선형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옛 기차길과 구조물을 보존해 철길의 흔적은 살리면서 주변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숲길로 조성했다. 경춘 철교를 시작으로 구리시 경계까지 숲길을 따라 걸으면 약 두 시간 정도 걸린다.

마지막 개통구간은 한국주택공사 2015년부터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 내 위치하고 있다. 당초 1단계 구간에 포함됐다가 공사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구간이 빠진 채로 개통됐다.

서울시는 국유지에 위치한 이 구간의 개



서울시는 11일부터 경춘선 숲길 전 구간을 정식으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연결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구부터 공덕제2철도건널목까지 0.4km 구간. 사진제공 서울시

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한 끝에 4월 이 구간에 대한 관리·보수를 시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인수 인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경춘선 숲길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토지 사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한 결과, 전 구간 개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춘선 숲길은 구간별로 각각의 특

성과 매력을 갖고 있다. 1단계 구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허름한 주택이 카페로 변신,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단계 구간은 시민이 직접 가꾼 텃밭과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 유실수와 향토 수종 등 다양한 수목으로 정원이 조성됐다. 3단계 구간은 옛 화랑대 역사와 함께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숲속 철길이 생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 숲길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걷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 기억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문제에도 대처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전 구간 개방으로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를 거쳐 강원도 춘천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연결돼 서울의 새로운 자전거 코스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협력 기관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춘선 숲길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는 ‘경춘선! 숲길로 다시 만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김학익, 피의자 신분 檢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익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과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檢 ‘인보사 논란’ 코오롱생명과학 수사 착수

물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이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약 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관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준)에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료범죄 전담 부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물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식

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 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은 부실한 임상시험과 제조과정에 따른 무허가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임상 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2024년 개장

서울시, 내년 9월 착공 계획 민간투자사업자 제안 공모

서울시는 9일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 건립 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이날부터 9월 6일까지 120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창동역 인근 약 5만㎡ 부지에 1만

8000여 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실내공연장 ‘서울아레나 공연장’과 ‘중형 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등을 갖춘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5년 2월 ‘서울아레나’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서울아레나(주)가 최초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3월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4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9월까지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협상 및 실시 협약 체결과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2020년 9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2024년 1월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제안 공모 관련 상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공무원 민원 접수 때 등·초본 요구 못한다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제도 개선

앞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민원신청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기본서류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동의를 얻어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5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시니어 인기 사이 '키워드'를 주는 사람들
시니어 고령화는 난항, 쉽게 풀리지 마세요
재미있는 건강정보, 노인에는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

나만의 공간을 향유하다
Agit

COVERSTORY 아지트를 찾아서

PART1.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 - 당신에게 아지트란?
PART2. 지붕 없는 아지트 - 종로3가역 5년승구
PART3. 지자체 아지트 - 포레끼리 배우고 우리끼리 놀자
PART4. TV 속 아지트 - 시니어의 아침, 내 생활대로 먹는 게 최고야!
PART5. 셀럽의 아지트 - 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다
PART6. 이별 댄스 - 유령벌로 추천하는 시니어 아지트

벨에이징 시니어 괴롭히는 난청 약화 막으려면 보청기 착용해야

서울시영천구에 사는 신모 씨는 최근 손주를 보는 재미가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내들이 말문이 터진 후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 것이 삶의 낙 중 하나였는데, 요즘 무척 손주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졌다. 난청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척더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가톨릭대학교 안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방치하면 약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 교수를 통해 노화로 인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귀촌 귀촌 준비? 그런 것 전혀 없이 내려왔다

함수(鄭勳)가 귀촌을 촉발했다. 양주시 이산면 산기슭에 사는 심원복(57) 씨의 얘기다. 어릴 때 경험한 시골 풍경이 일주일도 안된 그리움을 불러오려하는 거다. 일주일, 소 잔등에 쏟아지는 석양색의 붉은 햇살처럼 목가적인 풍경들이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밥을 나눠주었던 인정이, 타향을 사는 자에게 향수란 근원을 향한 갈증 같은 것. 살아온 여차며 부림초처럼 객지를 떠도는 일이지 않던가. 하지만 내일이 돌면서 함수가 감어졌던 도란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질 즈음, 심 씨는 서울생활을 후다닥 접었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초연결시대, 노년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융합할 때
진정일 고려대학교 영재교수

해설처럼 나타난 육상 스타 스포츠스타 정재근

울퉁은 뮤지션, 명랑히 젊은 그의 노래 자면에 실려 온 허남석, 지지치지는 청춘의 삶을 살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봄 향기 따라 오강만족 남원을 거닐다

남원 하면 춘향, 춘향 하면 광한무림단 생각났다. 남원에는 진정한 광한무림 앞길 갈 데가 없을까? 궁리하던 때에 마침 광한중미술관이 개관했다. 오래된 동네 흥집과 같이 좋은 덕유산 술바람길도 발견했다. 이 신라비가 미술관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남원을 여행하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꽃밭 시가' 종종 생각났다.

자격증 두드림 '先 사회복지사 後 요양보호사'가 효율적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층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니어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노인복지·돌봄' 분야를 소개한다.

시니어 발상
올해에도 사할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부치지 못한 편지
신아연 소설가 잔인한 봄날의 편지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단기 렌트 아닌 모빌리티 셰어, 진정한 차량 공유”

‘구독형 차량 공유’ 서비스 준비하는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

렌터카업체 소유 차량 개인이 장기 렌트...7월 정식 서비스
공유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온디맨드 모빌리티’ 시대 선도

국내 중소형 렌터카 업체는 약 1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약 18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렌터카의 회전율은 60~70%에 불과해 나머지 30~40% 차량은 유휴되고 있지 않다. 만약 이 차량들을 플랫폼에 연결해 새로운 차량이용시대를 열면 어떨까. 조영탁(42) 비마이카 대표는 이 차량들을 연결하는 차량공유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조 대표는 2013년 일찍이 모빌리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비마이카를 설립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연간 310억 명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 중 63.5%가 개인소유 자동차, 12.2%가 지하철·기차, 12%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소유 시장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금 현재 개인차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중에는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온디

맨드(on-demand) 모빌리티’ 형태로 넘어갈 것”이라며 “비마이카는 중간에서 플랫폼을 제공해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마이카는 현재 약 1100대의 차량을 통해 전국 17개 지점에서 렌터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렌터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까지 더해 3만5000대가량의 차량이 연결돼 있는 상태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매출액 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400억 원까지 매출액을 늘릴 계획이다.

조 대표는 “올해 말까지 3만5000대의 연결 차량을 총 8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주 1500대가 증가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연결이 아닌,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도 론칭할 계획이다.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내면 차량 공유를 통해 다양한 차를 타고,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는 “구독형 공유 상품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차량 공유 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용하지 않을 때는 공유도 가능한 서비스다.

구독형 공유 상품이라고 명명된 이 서비스는 개인이 장기 렌트를 하되, 차량의 소유는 렌터카 업체가 가지면서 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에서는 개인차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공공차량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연간 2000달러를 내면서 차량을 원하는 대로 바꿔 타는 서비스도 있을 정도다. 비마이카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달 중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는 “이용자들이 당장 카셰어링을 이용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차량을 바꿔 타는 빈도는 적다”며 “국내에서 연간 차량 구매가 500만 대가량인데, 이 중 단 1000명만이라도 차량을 바꿔 탈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차량 공유를 단기 렌트의 개념이 아닌 모빌리티 셰어를 목표로 한다. 조 대표는 소유가 아닌 셰어의 개념으로 바뀌는 모빌리티 시장에 맞춰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중소형 렌터카 공유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완료하고 소유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조 대표는 “올해에는 매출 상승보다 중소형 렌터카 공유플랫폼 보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독 고객에게 셰어링을 통한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차량 공유시장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개호 장관, G20 농업 장관에 스마트팜·청년농 육성정책 소개
11~12일 日 니가타 회의 참석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에게 한국의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장관은 11~12일 일본 니가타 시에서 열리는 G20 농업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일본이 정한 이번 회의 의제는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다. 이 장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스마트팜 중심)로 전후방산업을 집적한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스마트팜 정책과 청년농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스마트 농업 분야 국제 협력도 촉구한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10일엔 도쿄에서 대일(對日)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김치수입협의회 등 현지의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대표들과 판로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대한항공 ‘하늘사랑 영어교실’ ...직원 7명 재능봉사

인천공항 인근 용유초교서

대한항공은 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8주간 총 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용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늘사랑 영어교실’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하늘사랑 영어교실’은 대한항공이 2009년부터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사다.

회사 측은 “방과 후 별도의 과외활동이

어려운 인천공항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지점 직원 중 영어 회화에 능통하고 교육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에 열정을 가진 직원 7명을 선발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영어교실은 용유초등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반해 수업이 진행된다.

하늘사랑 영어교실은 동화구연, 노래배



대한항공 직원들이 용유초등학교 학생들과 ‘하늘사랑 영어교실’ 개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기, 만화그리기, 수학배우기 등을 통해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씩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수학 배우기를 통해 사칙연산과 같은 교과목을 영어로 배워 보는 강의를 진행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기사판

21대 광복회장에 김원웅 전 의원

광복회는 8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1대 광복회장으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1944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태어난 김 당선자는 대학생 시절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된 바 있으며 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조하현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훈·서현진, 국제청 홍보대사 위촉



국제청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배우 이제훈(왼쪽)과 서현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제훈과 서현진은 앞서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인사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진명기
- ◆DS투자증권 <부문장 선임> ◇부사장급 △S/T 부문장 박태동 △경영지원부문장 최기섭 <부문장 선임> ◇전무급 △IB 사업본부장 박정수 △채권금융본부장 윤덕용 △헤지펀드본부장 위상식 ◇상무급 △법인영업본부장 신두영 △자산운용본부장 신호섭 △리스크관리본부장 김명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진

13~17일 중소기업 주간 전국서 104개 행사 열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인 대회 등 104개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업’, ‘상생·공정경제’, ‘글로벌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6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10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가 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하는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중소기업 주간 행사는 중소기업계의 현안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의지를 담아 준비했다”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사기가 진작되고,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33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개최하고 27개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후원하며, 행사별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손병석 코레일 사장, 고속철 전기설비 보수 현장점검 충북 영동 작업현장 방문 작업자 안전 주의 당부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취임사에서 현장 최우선 경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계속해서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손병석 사장은 9일 새벽 충북 영동 인근 경부고속선 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선로전환기 등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에 전기 공급을 모두 차단한 후 진행됐다. 점검차량을 타고 전차선, 전력공급

장치 등 전기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본 손병석 사장은 고속철도 설비 정밀 점검을 위한 기술력 향상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손병석 사장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진행되는 작업인만큼 작업자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도훈 기자 soqood@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9일 새벽 충북 영동 인근 경부고속선에서 전차선로 유지보수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음

▲도상목 씨 별세, 노재호(GS건설 싱가포르지역본부장 상무) 씨 장인상 = 8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2-440-8800

▲진명길 씨 별세, 진경천(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장)·경희·경화 씨 부친상 = 8일,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0일 오전 10시, 051-601-6791

▲박경수(제13·14대 국회의원) 씨 별세, 전정순 씨 남편상, 박정희·정은·정하·영선·홍선 씨 부친상, 김병열·제윤경·백상남 씨 장인상, 최은희 씨 시부상 = 9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33-741-1991

▲정영자 씨 별세, 김정숙·기홍(캐나다

거주)·귀숙·기진(경상대 법대 교수·변호사) 씨 모친상, 김수기(전 한화그룹 상무)·김인규(전 영주여고 교장) 씨 장모상, 김행순·정은혜 씨 시모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07

▲최유순 씨 별세, 정운경(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운순·운용(한국휴렛팩커드 전무) 씨 모친상 = 7일,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43-210-5180

▲박진호 씨 별세, 안효대(전 국회의원) 씨 장인상 = 9일,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백합원6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53-258-4444

▲김진열 씨 별세, 구혜경·재경(디엘파마 상무·전 보령제약 이사)·재현 씨 모친

상, 고보경·연구화 씨 시모상 = 8일,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1일, 02-2030-7901

▲송종희 씨 별세, 이범수(전 대한특수목재 대표) 씨 모친상, 권오진(전 ㈜대하건설 전무이사) 씨 장모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15분, 02-3410-6919

▲강백현 씨 별세, 강민오(자영업)·태오·혜선(부곡고 교사) 씨 부친상, 정정욱(스포츠동아 경제부 기자) 씨 장인상 = 9일, 전남 여수 호남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061-641-0404

▲임옥남 씨 별세, 심효경·유경·인섭·진섭·현섭(개그맨) 씨 모친상, 이항란·장지현 씨 시모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2-3410-6917

허천국의 세계경제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미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매우 달랐다. 우리는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은 '감세'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고용이 늘면서 임금이 오른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임금은 올랐으나 고용이 감소했다. 희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가 소득 불평등 악화와 같은 심각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좀 과장해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식 '소득주도성장'은 적극적 대응이다. 대치점에는 미국의 소극적 대응 방법이 있다. 최근의 성과를 보면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뚜렷하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거두절미하자면 소극적 접근법을 따른 미국의 고용과 임금 결과가 적극적 접근법으로 대응한 우리나라보다 더 양호해 보여 그 연유를 살펴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의 실업률은 4% 수준에서 치솟으며 이듬해에 10%에 육박했다. 백년에 한 번쯤 있을 법한 위기가 발생했으니 후폭풍에 경제가 얼어붙은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2007년 1억4540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2010년까지 700만 명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 비중)은 71.8%에서 66.7%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 실업률이 지속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적으로 낮아지고 취업자는 계속 늘며 작년에는 취업자 수가 1억5580만 명(고용률 70.7%)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올 4월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8%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인력난으로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난 수년간 임금 증가세가 저조했다. 특히 숙련도나 교육 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정체가 길어지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축 △세계화로 미국 내 비숙련 노동자들이 해외 저임금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형국 △가입를 하락에 따른 노조의 교섭력 약화 등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4월 들어 근로자 평균 시간당 소득이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3%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행방이 묘연했던 임금 상승 추세가 확인해졌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 부분에서의 임금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그동안 '실업률 저조-임금 상승' 경험칙이 어긋났는지에 대한 설

명으로 그간 기록적으로 낮아진 실업률이 인력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큰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 시장을 떠나면서 노동시장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률 계산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률이 2017년 70.1%에서 작년 70.7%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학력·고숙련뿐만 아니라 비숙련 직종에서도 인력난이 심해졌다. 따라서 그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인력들이 복귀하며 빠르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지표를 보면 미국에 비해 2008년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한 후 회복하는 모습이 비슷하다. 인구 추세 차이를 감안해 고용률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64.1%로 고점을 찍은 후 한국의 고용률은 1%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2012년에 이전 고점을 회복한다. 그 후 꾸준히 오르며 2017년 66.63%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66.61%로 오히려 하락했

다.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 추세를 보면 평균 명목임금이 3% 정도 오르다가 작년에는 5.3% 증가했다. 이는 그 이전 7%대 증가세를 보이던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로 오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해인 2018년은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기간이기에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매우 달랐다. 우리는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은 '감세'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물론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고용 회복세가 이미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이 늘면서 임금이 오른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임금은 올랐으나 고용이 감소했다. 희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그간 정부가 따랐던 '임금 올리는 방법'을 재고할 때 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종호 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국은?

여 년 전이라는 얘기가.

946년과 947년 백두산이 폭발할 때의 '화산폭발지수(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는 7.4이며 화산재는 100~150km로 추정된다. 이것은 역사시대, 즉 지난 2000년간 지구상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기원후 61년 폼페이를 최대 두께 6m로 순식간에 매몰시킨 베수비오 화산이 품어낸 화산재의 양은 2km로, 백두산은 베수비오 화산 50~75개가 터진 것과 같은 규모이다. 화산재가 10~15cm 두께로 쌓이면 건물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위력적이며 1cm만 덮여도 농작물은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 또한 마그마에 포함된 다량의 불소는 유독가스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질식사킨다.

중국 측은 1000년 백두산의 분출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불화수소 약 2억 톤과 아황산가스 2300만 톤이 함께 분출되어 편서풍을 타고 북한의 함경도를 거쳐 초속 120m(시속 400km)로 이동해 발해의 동

경, 중경 인근과 1000km 이상 떨어진 동해에는 약 10cm, 일본의 아오모리 와 홋카이도 남부는 약 5cm, 그리고 훈스섬 야기타와 도마코마이 등 광대한 지역에는 이보다 낮은 두께의 화산재가 쌓였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폭발로 백두산 인근(발해의 멸망요인으로도 추정)의 북한과 중국 일부 지역, 일본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만 한반도의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대형 폭발인 경우 화산재의 피해는 전지구적이다.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섬에서 쏟아진 화산재는 지구 대기 온도를 0.5도나 떨어트려 각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고 지구 대기 온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백두산의 경우 20억 톤이나 되는 천지의 물이 넘쳐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생태계 변란, 토양 침식, 호흡기 질환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백두산의 화산재가 한반도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등 절묘한 위치

덕분에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폭발하느냐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백두산이 활화산이므로 폭발 주기가 10년 이내로 임박했다는 설도 있지만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대다수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마그마방을 자극하지 않을까이다. 2016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인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에서 '핵실험 유발 지진'이 7차례나 일어났다. 백두산과 116km 떨어진 곳이다. 학자들은 핵실험에 의해 규모 7.0 이상의 인공지진이 일어나야 백두산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일으킨 인공 지진의 규모는 5.7~6.3이므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명언
"나는 대한 사람으로 일본의 법률을 부인한다. 일본의 법률을 부인하면서 만약 일본 법률 논자에게 변호를 위탁한다면 얼마나 대의에 모순된 일인가? 나는 포로다. 포로로서 구차히 살려고 하는 것은 치욕이다."

교육자이자 시인. 일제강점기 유림 대표로 독립운동을 주관한 그가 대구형무소 옥중투쟁 중 한 말. 일제의 고문으로 다친 뒤에는 '벽옹(壁翁 - 앉은뱅이 노인)'이라는 별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유도회(儒道會)를 조직, 회장 겸 성군관(成均館) 관장을 지낸 그는 오늘 세상을 하직했다. 1879-1962.

☆ 고사성어 / 파천황(破天荒)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혼돈한 상태를 천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말. 당(唐)나라 형주(荊州) 지방에 사는 유세가 중앙에서 실시하는 과거시험에 처음 합격하자 급제하는 사람이 없던 형주의 전통을 깬다고 해서 말이 유래했다. 출전 북몽쇄언(北夢瑣言).

☆ 시사상식 /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전통적 투자 대상인 주식·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 속담 /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운수가 나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오해
복사실에 못생긴 여직원이 들어왔다. 잘생긴 남직원이 복사하다 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 반했습시다."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이 감격스러워 눈을 반짝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직원이 덧붙인 말. "나머지 절반도 금방 끝납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지난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나왔다. 4일 미국 버라이즌이 상용화를 한다는 정보에 예정일보다 이틀을 앞당긴 신속 대응이었다. 정부 독촉에 첩보영화급 '작전'을 수행했다는 업계의 후일담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는 '세계 최초'에 방점을 찍었고 5G 시대의 청사진 홍보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6년까지 관련 산업 생산 180조 원, 일자리 60만 개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세계 5G시장의 선도자로서 세계가 우리를 뒤쫓게 하겠다 장담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세계적 선도자로서의 국내 5G 생태계는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다. 앞장서서 5G시대에 동참한 30만 가까운 '일리어답터'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과 전국 광역시급 대도시의 기차역,

기사수첩

임기훈 중기IT부/shagger1207@

우물에서 승능을 마실 수 없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서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5G폰에 속만 터진다. 소도시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도로에서 스포츠카 모는 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5G 전국망 확충에 잡은 기간은 앞으로 3년이다. 2011년 4세대 LTE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전국망이 깔리는데 2년이상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활용 기반도 갖추지 않은 채 '최초'만 집착하는 우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G를 통한 수익은 결국 콘텐츠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선점에 공들인 만큼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도 보조를 맞춰야 했다.

서비스 시작 후 한 달 뒤에야 콘텐츠 개발에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입한다는 정부의 발표에서 순서가 틀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발빠르게 움

직여야 할 콘텐츠 해외 수출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세계 최초 개통이 아니라 세계 최대 콘텐츠 보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 선점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파이를 최대한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것은 애플이 아니다. 사용자 친화적 콘텐츠에 아기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직관적 사용법으로 시장 선도자의 입지를 굳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 스마트폰인 IBM사의 '사이먼'은 박물관의 유물이 됐고 한 때 스마트폰의 '맹주'였던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는 도태됐다.

정부가 진짜 독촉해야 했던 것은 세계 최초 타이틀 획득이 아니라 5G 생태계 조성 과 콘텐츠 개발이다. 우물에서는 승능을 마실 수 없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새마을금고 조직혁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이사장 자격 강화...투명경영 이룰 것”

대담 = 안철우 금융부장

“2019년 5월 8일, 자산, 예금, 대출 현황 000억 원·주요 대출상품 실적 현황...”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집무실 한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상황판은 실 새 없이 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 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집계된 각종 실적 수치를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그는 “항상 숫자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실무진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사장들 시대 흐름에 맞게 빨리 바뀌어야” = 박 회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본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올해를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라는 고객 중심 경영의 원년으로 삼았으며 말씀을 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고객)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고객과 접점을 늘려가는 일뿐만 아니라, 비상근 회장제도 개선과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 문제 해결 등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였다.

박 회장은 먼저 일부 지역 이사장의 갑질 문제에 대해 “부끄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1307개 새마을금고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겠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제를 일으킨) 이사장들이 시대 흐름에 맞게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조직이) 투명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취임 후 이사장에게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중앙회가 변화면 다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을 강화해 이사장 자격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 이사장 교육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고충처리단을 운영해 제보를 받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준법감시부를 통해 (이사장 문제 신고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본인 취임 이후 이사장이 몇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갑질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비상근 회장제 개편에도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저는 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려면 회장은 상근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고에서 손보 상품 직접 팔 수 있는 방법 찾을 것” = 박 회장은 ‘아픈 손가락’인 MG손해보험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앞서 MG손보는 금융당국에 세 차례 경영 개선안을 제출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앙회는 재무적 투자자 형태로 MG손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MG손보 인수를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라 (MG손보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면서도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중앙회의 돈이 투입된 이상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G손보 정상화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투자자(유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에는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 80% 정도 완료됐다”고 귀띔했다. 또 MG손보를 정상화도에 올려놓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경영개선도 이뤄내겠다고 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8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 이사장들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전국 1307개 새마을금고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이런 기자 photoeran@

일부 지역 이사장 갑질 문제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

고충처리단·준법감시부 운영

개혁·변화 지속 추진 위해

상근직 회장제로 전환해야

MG손보 투자 유치 진행 중

이달 말 정도 윤곽 드러날 것

디지털로 빨리 움직였으면

청년 고객 잃지 않았을 텐데...

IT 투자·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박 회장은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현재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해 금고에서도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관련 법 문제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금고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면 MG손보는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금고에서 직접 상품을 팔 수 있는 제도나 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새 자산 14조 원 증가... IT·비대면 영역 강화 = 중앙회는 올해 고객과 접점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박 회장 취임 이후 고객 유치에 힘쓴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27% (14조 원) 증가한 수치다.

박 회장은 “일선 임직원이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과 차별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을 강조했고, 각종 카드 발급이 안 됐었는데 취임 이후 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특히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건실하다’는 애길 자주 한다”며 “우리는 회원에게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한다. 앞으로 토종 금융기관으로서 큰 장기적인 발전이 있다고 확신한다”

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약점인 청년 고객 부재와 IT 분야 약세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이용자층의 연령대를 보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탈린트 문제원 씨로 모델을 교체했고, 저출산세대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아이기정적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누구나 어릴 때 새마을금고를 접하지만 이런 경험이 사회생활 시작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IT 분야 강화 등을 통해 접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업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참가자에게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어보고, 새마을금고 장학금을 받아 본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사회에 진출해 이런 경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새마을금고가 디지털 분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IT 분야 강화 계획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IT센터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전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금융사 무인점포가 많이 활발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IT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가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1금융권이 할 수 없는 생활 밀착형 금융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학교 도서구매비 지원과 어린이집 물품 구매 등 밀착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1금융권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냇물이 흘러 바다가 되듯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라는 문구처럼 후손에게 따뜻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금고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정용욱 기자 dragon@

사설

문재인 2년 경제 낙제점, 親기업 전환 급하다

10일로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학교수, 연구원장, 기업인, 전직 관료 등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내린 평가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최악이다. 2017년 31만6000명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작년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톱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들어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 노인들의 고용만 증가했다.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 경제활동 중추인 30~40대 고용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다.

경제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추락하고 있다.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설비투자는 무려 19.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 가동률도 평균 71.9%에 그쳤다. 투자와 가동률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작년 12월 이후 5개월째 내리막이다. 그 결과 1분기 -0.3%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목표인 올해 성장률 2.5~2.6% 달성은 물 건너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탄소소리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행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미 경제의 비상한 위기인데, 전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마당이니 ‘위기감 없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할 의욕이 떨어지고, 경영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는 이유다. 결국 규제 혁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친기업으로의 일대 정책 전환 말고 달리 길 없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는 데 남은 3년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한 킷



모레 부처님 오신 날, 물방울에 비친 연등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 형형색색 달린 연등이 물방울에 비치어 그 모습이 조화롭다.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애 자비를! 세상애 평화를!’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와 화합의 따뜻한 기운이 넘치길 기원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